

# Sulwhasoo

VOL.71 JANUARY/FEBRUARY 2016

Sulwhasoo

VOL.71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6





사적성소 시리즈 P#10 / 이정록  
Pigment Print, 120x90cm, 2011

눈부시게 빛나는 나무 한 그루가 사진 속에 있다. 그 나무에는 수많은 빛들이 달려 있다. 클릭 몇 번으로 눈 깜짝할 새 만들어지는 그래픽 작업도 아니고 전구 하나하나를 나무에 붙인 것도 아니다. 그 빛은 작가가 오랜 시간을 들인 노력의 결실인 자연광, 플래시, 서치라이트 세 종류의 빛으로 만들어 영물의 결과다. 풍경과 환경 등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사진작가 이정록이 빛과 나무를 작품 속에 들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작가 노트에서 밝혔듯 '생명나무' 시리즈는 겨울의 어디쯤에서 만난 감나무에서 시작되었다. 매서운 추위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친 초록, 그것은 확연히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나무가 품고 있는 생명의 싹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생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순전히 작가의 몫이었다. 이 생명력을 보여줄 매개체로 작가가 선택한 것은 빛이다. 그의 사진 속 나무는 현실과 이상향, 두 세계를 연결하며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방대하고 심오한 불빛이 되어 '보란 듯이' 서 있다.

에디터 권지애

---

This artwork with glamorous colors is amazing with its pretty appearance at first sight. Look closer and the energy it evokes will be impressive with various sentiments as strongly as its colors do. It may look like a 2D drawing on paper or silk, but it is actually a 3D porcelain sculpture made with clay in various heights. The shade radiates exquisite charm. All of Ji Sook Lee's pieces are terra cotta relief colored with acrylic paint. The aesthetics of acrylic paint on terra cotta seems to cherish the true texture of objects and the depth of their colors as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With these qualities, empathy with the sentiments of her work is only allowed with the taste the visual and textural dimensions of the objects themselves rather than just the images. This artwork with glamorous colors is amazing with its pretty appearance at first sight. Look closer and the energy it evokes will beWith these qualities, empathy with the sentiments of impressive with various sentiments as strongly as its colors do.

#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6

##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5,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and the U.S., as the Asian beauty creator.



© 2015

# Sulwhasoo

VOL.71 JANUARY/FEBRUARY 2016



##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품격 있는 삶**  
복이 가득한 덕담 한마디
- 12 **피부 섬기기**  
적송의 생명력으로 한결같은  
젊은 피부로 되돌리다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공간을 해석하며 세계를 누비는 노마드
- 22 **新 공간을 보다**  
예술이 불어넣은 재생의 숨
- 28 **건너다**  
품위의 아름다움, 설화수로 완성하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요형  
발행일·2015년 12월 30일(통권 제71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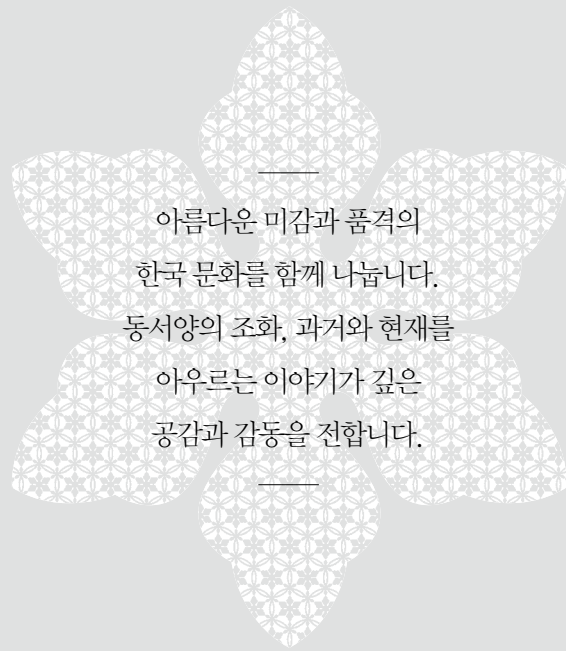
## 누 리 다

- 36 **설화인**  
그 선율, 아름답게 깃들다, 신지아
- 44 **어우러지다**  
전통을 더해 꾸민 일상의 위트가 빛나다
- 50 **설화풍경**  
새벽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後苑 風景
- 54 **설화보감**  
百味の 미감 속에 건강의 염원을 담다
- 60 **아름다운 기행**  
두 개의 도시, 빛으로 낭만을 즐기다  
서울 & 뉴욕
- 66 **설화수를 말하다**  
피부, 건강한 윤기를 더해 균형을 되찾다
- 72 **설화수 뉴스**

## 익 히 다

- 76 **배움의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 펜 끝에서 만발하다
- 80 **한국의 멋**  
환하고 둥근달처럼
- 82 **설화애장**  
이야기가 흐르는 시간
- 84 **읽다**  
익숙한 이야기와 새로운 시선의 콜라주
- 88 **집 안 단장**  
오색찬란한 기쁨으로 물들다
- 90 **몸 단장**  
행복으로 가득한 포근함을 감싸다
- 92 **설화 히스토리**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설화수 50년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 복이 가득한 덕담 한마디

## Wishes full of Good Fortune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언제나 새롭고 설렌다. 현 마음을 집어넣고 새 마음을 꺼내야 할 때,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고이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답게 오간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신년의 들머리는 상징들로 가득하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부터가 그렇다. 울긋불긋 화려한 떡들을 다 제치고 가래떡이 첫 음식이 된 건 정갈하게 맞아야 할 새 아침과 가장 어울리는 빛깔이 흰색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설날 아침에 ‘오조니(お雑煮)’라 불리는 떡국을 먹는데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고 여기는 건 우리와 비슷하다. 중국에는 춘절에 ‘자오쯔餃子(만두)’를 먹는 풍습이 있다. 음식물을 통해 신년의 복을 기원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년 풍습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덕담(德談)이다. 새해 첫날 주고받는 그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흐름이 뒤바뀐다는 것. 미혼 남녀에게 “올해엔 결혼해야지?”라 아니라 “금년에 혼례를 치렀는지? 축하하네”라고 해야 하고, 직장인에게 “올해엔 꼭 승진하십시오” 대신 “금년에 승진하셨다죠?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야 올바른 덕담이 된다.

이런 어법은 고대사회의 언령사상(言靈思想)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말 속에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어

The beginning of a new year is filled with symbols, starting with the rice cake soup we have on the first morning of the year. The plain white rice cake has become the first dish of every new year instead of the colorful rice cakes, because white is the color that goes best with the new morning of a new year. The Japanese also help themselves to a bowl of rice cake soup called ‘Ojoni’ (お雑煮) on the first morning of each year. The Japanese also believe that they age a year with a bowl of rice cake soup. It seems like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sh for a good year with food.

However, Korea has a unique New Year’s custom that is not found anywhere else. It is our expression of our wishes for other people as if they had already come true.

This custom originated from our ancient belief of the existence of spirits in words. Our unique custom of wishing words came from our belief that words have a miraculous power and that our wish will come true if we say it desperately.



리넨 소재로 만든 조각보는 달빛단풍, 전통의 선과 색감이 그대로 반영된 합은 애슬린, 팔각 나무 함은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월넛으로 제작된 팔각 소반은 양웅걸 작가 작품.

뭔가를 간절히 말하면 결국엔 그대로 실현된다는 믿음이 덕담이라는 독특한 풍습을 낳았다는 얘기가. 덕담의 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점복관념占卜觀念'에 닿는다. 세상 만물에 모두 길흉의 예조가 있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은 그걸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점복술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징조를 듣는다'는 뜻의 '청잡聽讖'이다. 청잡이란 새해 첫 새벽 거리에 나가서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처음 듣게 되는 소리로 그해의 신수를 점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송아지가 울면 풍년이 들고, 까마귀가 울면 역병이 돌며, 개가 짖으면 도둑이 많을 것으로 믿는 식이다. 청잡은 <동국세시기> 같은 옛 문헌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년 풍습들 중 하나이며, 크게 보면 덕담 역시 청잡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건, 수동적으로 소리를 듣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상서로운 소리를 능동적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까치가 가장 좋아한다는 미루나무를 심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신년의 여명과 함께 들려오는 까치 소리아말로 더없는 길조가 아니었으랴. 이 같은 청잡의 능동성은 이윽고 '듣기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덕담으로 이어졌으니, 이토록 멋들어진 원시 신앙의 진화를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새해 아침마다 서로에게 건네던 그 신령스러운 축복을. S

The origin of wishing words shows the underlying concept of fortunetelling. The olden people believed that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a sign of good or bad fortune. Thus, they created various fortunetelling techniques to read the signs. The most popular of these techniques is Cheongcham (聽讖), which means 'listening to the signs.' Cheongcham foretells one's fortune in a new year through the first sound the person hears while wandering outside in the early morning on New Year's Day. If he hears a calf crying, he will have a good harvest; if he hears a crow, he will suffer from an epidemic; and if he hears a dog barking, he will encounter many thieves. Cheongcham is one of the New Year customs commonly found in the old texts, including in 'Dongguk-sesigi,' and wishing words are extensions of Cheongcham with a broader meaning.

What is interesting is that people actively highlighted auspicious sounds instead of passively listening to any sound. A major example of this is that each household in every village planted cottonwood trees, which are the most favorite trees of magpies. The sound of magpies at the dawn of a new year must have been the best sign of good fortune. The activeness of Cheongcham later drove people to say something nice to others beyond just 'hearing' sounds. Where else can we find such great development of a primitive belief? We find it in the spiritual blessings we share with one another on each New Year's Day.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한 벽지는 패턴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모노컬렉션 백자 화기는 이정은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사각 백자 합은 최홍선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분홍과 옥빛 원형 옷칠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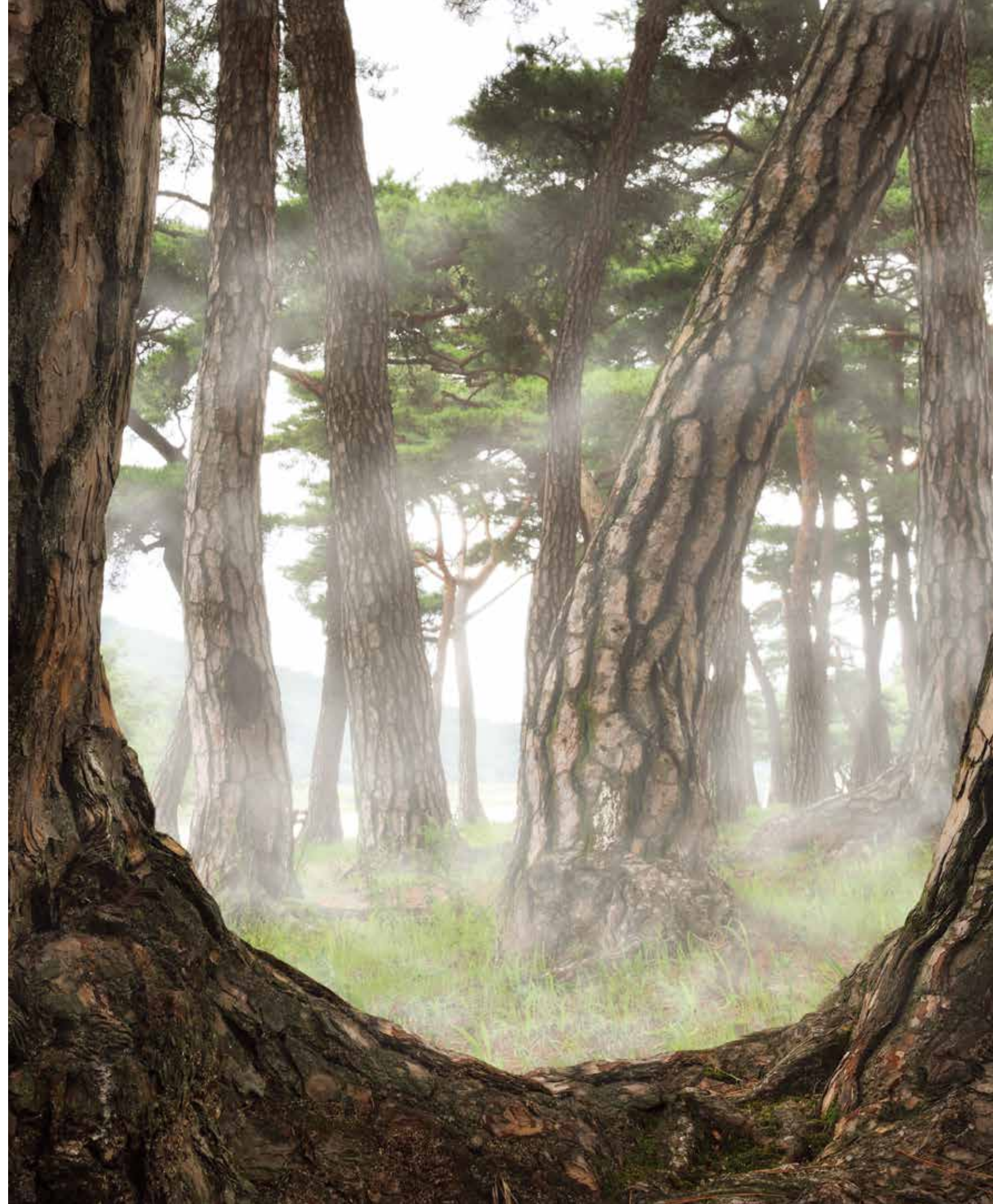
## 적송의 생명력으로 한결같은 젊은 피부로 되돌리다 Restoring timelessly youthful skin with Red Pine

설화수 한방 미학의 정수를 완성시킨 진설은 피부를 섬기는 귀한 정성과 맑고 강인한 생명력을 담은 적송, 그리고 전통과 과학의 만남을 통해 완성된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일러스트 임성규

사람의 보살핌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생명을 키우며 더욱 질푸르고 생생한 잎을 피우는 소나무. 그중에서도 치유와 더불어 천년의 생명력을 간직한 한국의 대표 소나무인 적송의 기를 담아 피부를 탄탄하고 조화롭게 다스려주는 진설라인은 설화수의 격조와 품격을 대변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이러한 진설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적송 속에 극미량만 존재하는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이다. DAA는 노화의 징후와 원인을 총체적으로 케어하고 피부의 힘을 끌어올려 한 번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노화를 케어해 피부 시간을 정지시킨다. 두 번째는 설화수만의 포제법인 취송정법(取松精法)이다. 증기를 짚어 찌고 말려 DAA를 농축시킴으로써 보다 깊고 강한 케어를 선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DAA를 피부 깊이 전달하는 캡슐화 기술 또한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DAA를 담은 진설이 연약해진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진설은 어떤 환경 요인에도 굴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명품이다.

The pine trees firmly bear life even in a barren environment without the care of people, and grow even greener and livelier leaves. Timetreasure Line is a total anti-aging line that contains the energy of Red Pine, the major pine tree of Korea, with the power of its remedy and its thousand-year vitality, to leave your skin firm and balanced. The core of Timetreasure Line can be mainly divided into three ingredients. The first is DAA, the skin life-fortifying anti-aging substance that is found in Red Pine in an extremely small amount. DAA is a skin-life-fortifying and anti-aging substance found deep inside Red Pine. It comprehensively erases all signs and factors of aging, enhances the strength of the skin to resolve recurring skin aging issues, and realizes every woman's dream of stopping skin aging. Second, it uses Sulwhasoo's POJE Optimizing Process™, a method of refining pine (取松精法). The Red Pine is steamed and dried to concentrate DAA for deeper and stronger skincare. Finally, the capsulation technology for deeper delivery of DAA is Sulwhasoo's original technology for better absorption of DAA on vulnerable skin. Timetreasure is a true premium product for healthier, firmer skin that does not surrender to any environmental aggressor or unpredicted weather conditions.







**진설크림, 진설아이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고 한결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진설크림 60ml,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고 적송의 생명력으로 탄력 있게 다스리는 진설아이크림 25ml.

메마른 겨울 추위가 극에 달하는 요즘, 피부는 내외적 환경으로 연쇄 노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증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지언정 '노화'라는 이름으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진설크림과 진설아이크림은 적송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한결같은 젊은 피부를 위한 토털 안티에이징 케어를 선사한다. 피부 효능을 배가시키는 놀라운 디테일로 제품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와 닿는 적송을 담은 향은 가볍게 사라지지 않는 진중함으로 오랫동안 피부 위를 맴돌며 편안한 휴식의 기운까지 선사한다. 또한 탄력 있는 제형에서 느낄 수 있듯 탱탱하면서도 매끄러운 독특한 텍스처가 피부에 도톰하면서도 부드럽게 밀착되어 섬세한 보호막을 형성, 케어와 보호의 이중 역할로 피부 전체를 단단하게 아우른다. 진설을 만나 섬세하게 케어되는 피부는 적송의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에서 발현되는 감동인 것이다. S

The dryness of cold winter air has reached the extreme and wields an aging chain reaction on the skin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aggressors. Although the symptoms may vary, they all cast a shadow on your face in the name of 'aging.'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EX and Timetreasure Renovating Eye Cream EX deliver total anti-aging care for timelessly youthful skin with the powerful vitality of Red Pine. Their scents greet you first the moment you open each product, and lingers around you and on your skin for a long time to give you energy for a comfortable rest. In addition, each product's amazing details multiply its efficacy on your skin. As you can see in the resilient texture, the uniquely firm and smooth texture forms a thick barrier on your skin and can be applied smoothly for protection. The double effect of care and protection solidifies all layers of your skin. Your skin becomes delicately refined with Timetreasure Line and the powerful vitality of Red Pine itself.

진설아이크림  
사용법  
How to Use Timetreasure  
Renovating Eye Cream EX

**Step 1**

스파츨라로 손등에 적당량을 취해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눈 아래, 옆, 눈두덩 부분에 점을 찍듯이 발라준다.  
Use the spatula to scoop an appropriate amount of the cream, and place it on the back of your hand. Then use your fingertips to spread the product on the skin below and around your eyes.



**Step 2**

양손의 셋째, 넷째 손가락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펴 발라준다.  
Use your middle and ring fingers to massage the product smoothly on your skin.



**Step 3**

남은 내용물을 중지를 사용해 콧방울부터 눈썹 앞머리까지 코 벽을 쓸어 올리며 마무리해준다.  
Use your index fingers to rub the remainder of the product from your nostrils to the inner ends of your eyebrows.



진설 얼굴 중심  
강화 마사지  
Timetreasure Facial Core  
Strengthening Massage

**눈 주위 끌어 올리기**

눈 밑을 손가락 3개로 끌어 올려주는 것 3회 반복, 눈 전체에 손가락을 밀착 시켜서 끌어 올려주는 것 3회 반복.  
Pushing up your eye area  
Use three fingers to push up your under-eye area three times. Place your fingers over your eyes and push them up three times.



**얼굴 중심부 끌어 올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팔자주름 밑에서부터 콧방울까지 3회, 콧방울부터 미간을 향해서 3회 끌어 올려준다.  
Pushing up the center of your face  
Use your middle fingers to push up the area from below your nasolabial folds to your nostrils three times, and from your nostrils to between your eyes three times.



**스파츨라로 얼굴 지압**

스파츨라의 둥근 주걱 뒷부분을 이용, 눈 - 코로 이어지는 십자 축까지 바르고 지압점을 눌러주면 얼굴의 중심이 살아난다.  
Massaging with the spatula  
Use the round end of the enclosed spatula to apply the product on your eyes and nose, and press your acupuncture points to awaken the center of your face.



# 공간을 해석하며 세계를 누비는 노마드

## Han Sungpil

한 성 필

작가를 두고 '물리적 여행과 정신적 여행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는 한성필 작가는 지난 몇 년 동안 남극과 쿠바, 이탈리아 등지로 떠돌았다. 이쯤 되면 그를 탐험가라고 불리도 무방해 보인다. 요즘엔 "짐 싸기가 힘들어졌다"며 웃는 그는 고된 '탐구의 여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The Ivy Space>, Chromogenic Print, 2009

파사드(Façade, 건물의 정면 혹은 방진막)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건 어떤 이유인가?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던 영국 유학 시절, 우연히 보수 중인 세인트 폴 대성당의 파사드와 마주하고, 실제와 이미지 사이에 놓인 간극을 설명하는 매체로 삼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2009년 작 <The Ivy Space>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벽돌'과 '담쟁이'라는 이미지로 '공간' 사육을 기억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건축의 요람이란 평가를 받는 공간 사육의 내부가 아닌가. 그래서 도면과 내부 모습을 방진막에 담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진막이라는 수단(매체)이 아니라, 작가의 관심이 응축된 '발언'임을 이 기회에 다시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 영화라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웹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설치가 아닌 다른 매체를 발언의 도구로 삼게 될지도 모른다.

"사진은 공간을 해석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사진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가? 먼저 물리적 여행이나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항상 의문부호를 떠올리는 게 관성이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뉴욕의 리버티 섬에 있어야 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의 거리에서 자주 목격되는 걸 작품에 담은 적이 있다. 건물 옥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대체

What motivated you to start the Façade (front awning of a building) project? When I was contemplating the borderline between photography and painting while studying in England, I happened to come across a façade at St. Paul's Cathedral, which was still under construction at that time. That was when I decided to adopt the façade as a medium that explain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magery. For example, there is 'The Ivy Space' from 2009. People remember a 'space' of an office building from the images of 'bricks' or 'ivy.' What is important, however, is the inside of the office building, which is known as the cradle of Korean architecture. That is why I captured the drawings and interior of the façade.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tress that what is important is not the medium of the façade, but the 'statement' that conveys the artist's interests.

You said "Photography is a process of interpreting a space," but through which standards and procedures do you arrive at the destination of photography? First, it has become my habit to always have a question mark in my head when I travel and converse in everyday life. For example, I once captured on a photograph that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렇듯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공간을 재해석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고, 그런 것대는 때로 경제학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작품이 탄생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 과연, 우리는 불국사를 통일신라의 건축양식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도 최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국사의 현재 모습은 조선시대와 1970년대의 원칙 없는 중건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순신 장군상 역시 마찬가지여서, 1947년 미군정 아래에서 발행된 우표 속 이순신 장군은 우리 눈에 익은 표준 영정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장군의 영정 역시 판이한 모습이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문 의문과 탐구가 하나둘 모여서, 마침내 작품으로 집약되는 셈이다.

**교과서에 작품이 실려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다.** 남한산성 설치 작업 등이 실려 있는데, 개인적으로야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의 청소년들에게 내 작품이 기준이 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한다. 교과서보다 훨씬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세대들이지 않은가. 그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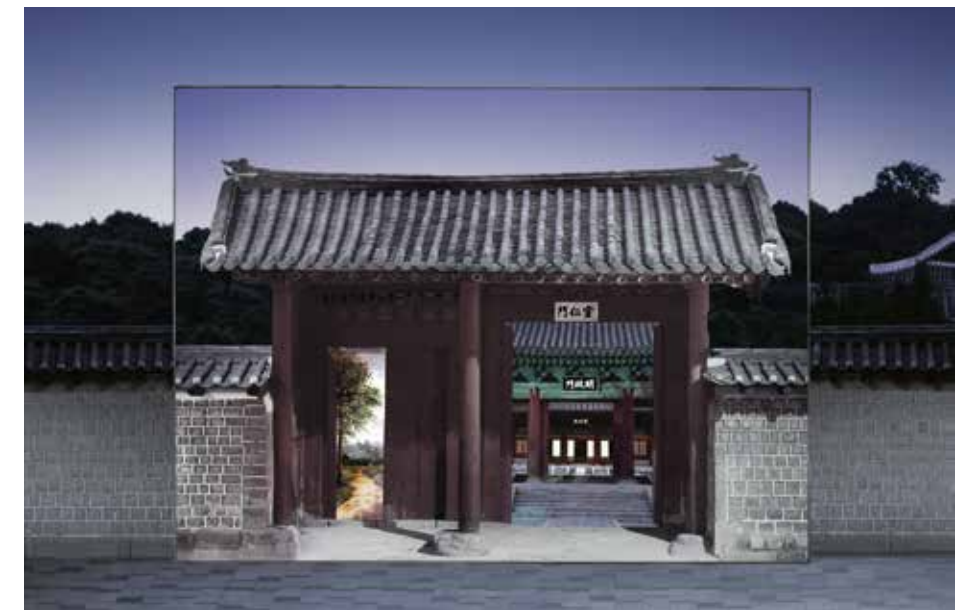
**외국에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 한국의 미(美)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 일반적인 답이라면 '절제의 미'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강력한 국력과 문화체계를 가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힘이 아닐까 싶다. 당장 한옥의 기와지붕만 봐도 중국,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는다.

the Statue of Liberty, which should be on Liberty Island in New York, is often witnessed on streets across Asia, including in Korea, the Philippines, and Mongolia. Looking down on the Statue of Liberty that is looking down upon the world from the rooftop of a motel, I wondered as to why something like this has happened. It is my style to reinterpret spaces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using economics or philosophy as my standards.

**Can you elaborate the steps you take in creating your artwork?** Could we say for sure that Bulguksa Temple has the architectural styles of Silla Unification? I actually learned this recently, but Bulguksa Temple was randomly reconstructed in the Joseon Dynasty and in the 1970s. The Status of General Yi Soon Shin is not an exception. General Yi Soon Shin's image, on the stamp issued in 1947 under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his standard portrait that we are familiar with. The portrait you can find in North Korea is also very different. A series of questions and explorations come together to create an artwork at last.

**Some of your work are featured in textbooks. How do you feel about this?** My Namhan Fortress Installation and other pieces can be found in textbooks. It is a great honor for me personally to have them featured in textbooks. However, I wonder if it is necessary to show my work to adolescents who are still developing their egos. The adolescents in this generation are exposed to and influenced by a wide variety of media besides textbooks. It may not be right to present them any one standard.

**Do you have a unique view of Korean aesthetics, since you have worked extensively overseas?** A general response to this question is that I have come to embrace 'the aesthetics of modera-



<Light of Magritte>, Chromogenic Print, 178x238cm, 2009  
<Changgyeong Palace>, installation by Han Sungpil, 2012





Harmonious Havana Instalaltion Processing, 33m×28m, 2015  
 <Harmony in Havana>, Chromogenic Print, Installaton Size 33m×28m, 2015, Installation by Han Sungpil.

그런 까닭에 세계적 미술 축제인 아바나 비엔날레(Havana Biennale)에 초대됐을 때, 감은사지삼층석탑 이미지를 차용한 것인가? 쿠바 아바나의 카피톨리오(옛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감은사지삼층석탑 이미지를 파사드에 담은 건 몇 가지 맥락에서다. 쿠바의 건축물은 식민지 탓에 스페인풍이지만, 대다수 주민은 사탕수수 농장에 동원된 아프리카인들이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혼재된 땅에 아시아의 상징적 이미지를 접목시키고 싶었다. 또 쿠바는 북한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우리와 수교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염원이 담긴 석탑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최근, 쿠바에도 K-POP의 열풍이 거센 건 사실이지만, 지속성이 취약한 대중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화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도 컸다.

끝으로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작품과 계획이 궁금하다. ‘경기도 연천군’ 하면, 군사분계선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유럽 쪽에서만 발견되던 아슐리안기 주먹도끼가 발견된 대표적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 지역이라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방치된 옛 안보전시관이 있는데 곧 생태관광 체험 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내년 5월쯤 그곳에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S

tion,’ but I don’t think that is my view. I think I have the power to develop and preserve a unique culture between the strength and cultural systems of China and Japan. Even the tile-roofed Korean houses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e houses in China and Japan, aren’t they?

**Is that why you adopted an image of the Gameunsaji Three-story Stone Pagoda when you were invited to the world-class Havana Biennale?**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captured an image of the Gameunsaji Three-story Stone Pagoda on the façade of the Capitolio (the former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Havana, Cuba. Most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in Cuba reflect Spanish styles because of the Spanish colonization of the country, but most Cubans are African natives brought there to grow sugar cane. I wanted to bring a symbolic image of Asia to the land where Europe and Africa coexist. Also, Cuba is not officially open to us because of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at is why I thought a stone pagoda that conveys our wish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as a perfect choice. K-POP is a great hit in Cuba these days, but I wanted to bring to the country another aspect of Korean culture besides our pop culture, which is fleeting,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our two countries.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hear about your latest work and plans.** ‘Yeoncheon-gun in Gyeonggi-do’ often sounds like a dangerous place because of its demilitarized zone. However,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its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Paleolithic relics, represented by the Acheulean hand axes that have only been found there besides Europe. There is an abandoned security museum in the area that will be transformed into an eco-tour experience facility. I am planning to exhibit my work there around May next year.





## 예술이 불어넣은 재생의 숨 A Breath of Regeneration blown in by Art

산업화 시대 에너지의 보고寶庫로 여겨지던 강원도의 많은 탄광은 폐광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삼척탄좌는 창의적인 시도와 예술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옛 건물과 새 건물이 어우러져 다시 생동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삼탄아트마인

삼척탄좌에서 캐울리던 모든 석탄을 모아놓던 시설은 레일바이뮤지엄으로 재탄생했다. 레일 위의 붉은 꽃 조형물이 찬란했던 옛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보게 한다.





인생 막장, 흔히들 '막장'이란 표현으로 갈 곳 없는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한다. 막장은 실제로 갱도坑道의 끝부분으로 가장 위험한 공간을 일컫는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막장에서 매캐한 연기를 온전히 들이마시며 석탄을 캐내어, 흙고 허기진 시대에 산업 역군으로 활약했던 광부들, 이들의 얼굴을 매일같이 촘촘히 메웠던 검은 그을음 만큼이나 1960~80년대 탄광촌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 주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 연료가 연탄에서 석유와 도시가스로 대체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탄광은 제 몸을 다 태운 연탄처럼 서서히 활기가 사그라져갔다. 삼탄아트마인의 과거도 그러했다.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되다 2001년 폐광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삼탄아트마인의 전신이다. 12년이 지난 2013년 5월,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문화적 정서를 일깨우는 '지역 문화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척탄좌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탄광이라는 산업 시대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개발보다는 지역의 살아 있는 역사와 기억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

Many miners were brave industrial workers who endured the bad air underground to dig up coal in the dangerous blind ends of mine shafts during times of cold and hunger. Mining towns flourished from the 1960s to the 1980s, as much as the black soot that densely covered the miners' faces each day. As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changed in the 1990s and the major source of fuel shifted from briquettes to petroleum and city gas, the prosperity of mines gradually faded, like a briquette with a completely burned body. Samtan Art Mine was not an exception. It used to be Samcheok Tanjoa Jeong-am Mine, which operated for 38 years since 1964 and shut down in 2001. Twelve years later, in May 2013, Samcheok Tanjoa was reborn as a culture and arts complex that is part of the local culture regeneration project to bring life back to the local communities that have been depressed since the mines were shut down, and to awaken cultural sentiments. The mine, which is a living history and memory of the industrial era, was creatively recycled instead of being modernized.

- 1 850항이라 불렸던 수평갱도로 850은 해발을 의미하며 현재 옛 갱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2 기억의 정원에 위치한 '석탄을 캐는 광부' 조형물. 1974년 900갱에서 갱도 내 출수 사고로 26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참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추모의 탑.
- 3 삼척탄좌 시절의 40년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한 삼탄뮤지엄.



받아 삼탄아트마인은 2013년에 공공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한국관광공사 '100대 관광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삼탄아트마인은 크게 수평갱850, 삼탄아트센터와 레일바이뮤지엄, 레스토랑832L, 야외 정원 공간 등으로 나뉜다. '수평갱850'의 850은 해발을 의미하며 옛 갱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수평갱 앞에 놓인 노란색 탄차와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탄광 시절 종합 사무동이던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삼탄아트센터로 변신했는데, 독특하게도 4층부터 1층으로 내려가며 관람하는 동선이다. 이곳에서 옛 샤워실, 화장실, 세화장(장화를 세척하던 곳) 등은 옛 모습 그대로 살려 현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놓았다. 한 공간 안에서 현대 공간과 옛 공간이 공존하는 모습이 색다른 감회를 느끼게 한다. 4층에는 전망 라운지 카페와 아트 레지던스가, 3층에는 현대미술관 CAM(Contemporary Art Museum)과 삼척탄좌 40년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한 삼탄뮤지엄 그리고 자료실이 있다. 2층과 1층에는 삼탄아트마인 김민석 대표가 35년간 세계 150여 개국을 여행하며 모은 작품을 전시한 수장고와 마인갤러리, 어린이 미술관, 아트숍 등이 자리하

Samtan Art Mine is largely divided into Horizontal Shaft 850, Samtan Art Center and Rail by Museum, Restaurant 832L, and an outdoor garden. Horizontal Shaft 850 refers to the altitude of the mine, which is 850 meters above sea level. Here, the old mine shaft is preserved. The yellow coal wagon by the shaft and the "Daddy! Be Safe Today" inscription are eye-catching. The former office building has been remodeled into Samtan Art Center and has a unique trail where the visitors start on the 4th floor and descent all the way to the 1st floor. This place exhibits the art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without removing the old shower booths, restrooms, and boot wash. It is interesting that modern and old spaces coexist in this venue. The 4th floor houses a lounge café and an art residence, whereas the 3rd floor has CAM (Contemporary Art Museum), Samtan Museum, and a resource room that preserve the 40 years of Samcheon Tanjoa. The 1st and 2nd floors have Mine Gallery, Children's Art Museum, and an art shop.





삼탄아트마인  
찾아가는 길

**위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45-44  
033-591-3001, www.samtanartmine.com

**자동차** 서울 출발 / 영동고속도로(50) -  
중앙고속도로(55) 만종JC - 제천IC - (38번국도)  
단양(영월) 방향 - 삼갈래 교차로 정암사, 함백산로  
(414지방도) 진입 - 직진 후 우측 - 삼탄아트마인

**대중교통** 동서울(외) 각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  
고한 경유 태백 방면 / 고한시외버스터미널 도착  
- 정암사, 만항 방면 시내버스 20분 소요 -  
삼탄아트마인 앞 버스정류장 도착

고 있다.

삼탄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레일바이뮤지엄은 삼척탄좌에서 캐어 올린 석탄을 모두 모아놓던 시설로, 거대한 권양기가 우뚝 솟아 있는 삼탄아트마인의 상징적 장소이다. 지금은 어떠한 기계 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 한때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운반되던 곳. 세월을 거슬러 묻어나는 탄광의 역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온통 갯빛이 난 무하는 가운데 덩덤히 서 있는 세 송이의 붉은 꽃 조형물은 아릿한 울림으로 전해진다. 레일바이뮤지엄을 나오면 외부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채탄 현장에서 희생된 광부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기억의 정원', 수평갱을 활용한 '동굴 와이너리 뱅' 등이다. 해발 832미터에 위치했다 하여 이름 지어진 '레스토랑832L'은 탄광의 기계들을 제작, 수리하던 공장동 건물이었는데, 예술가의 손길을 거쳐 빈티지 콘셉트의 레스토랑으로 변했다. 낡은 공간을 없애고 파헤치기만 하던 틀을 깨고 폐광에 불어넣은 재생의 숨결은 탄광의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공간을 낳았다. 석탄을 캐던 곳에서 이제는 문화예술을 캐어내 지역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S

Rail by Museum, which is connected to Samtan Art Center, used to be where all the coal mined in Samcheok Tanjoa was gathered. It is the symbol of Samtan Art Mine, where a gigantic windlass stands tall. The sculpture of three red flowers that stand silently amidst the grayish area delivers a rather saddening resonance. The Exit Rail beside the Museum leads to the space outside with the Garden of Memory, which cherishes and remembers the miners who were sacrificed in the mines, and the Cave Winery in the horizontal shaft. Restaurant 832L, so-named because it sits 832 meters above sea level, used to be a factory building that fabricated and repaired mining machines,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vintage restaurant with the touch of an artist. Outside the development style that dug up and removed the old spaces, the breath of regeneration blown into the old mine has created a new cultural space that cherishes the history and art of mines. Now, it is bringing warmth to the local region not as a place that digs up coal, but as a place that digs up culture and art.



1, 3 레스토랑 832L은 탄광의 기계들을 제작, 수리하던 공장 건물로 예술가의 손길을 거쳐 빈티지 콘셉트의 레스토랑이 되었다. 손때 묻은 기계들은 와인 바의 카운터, 테이블 등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2 삼탄아트마인의 상징적인 조형물인 거대한 권양기가 우뚝 솟아 있는 레일바이뮤지엄의 외관.



# 품위의 아름다움, 설화수로 완성하다 Dignified Beauty, perfected with Sulwhasoo

태국의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은 설화수. 단순히 피부 위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넘어, 순수한 그들의 마음속 내면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그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코비스







설화수의 모든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시암 파라곤 설화수 매장  
이곳에서는 피부를 위한 진심 어린 카운셀링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태국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 뜨거운 나라 태국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다

얼굴에 와 닿는 후끈한 바람과 함께 코끝으로 전해오는 삶의 진한 향기는 태국 방콕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국의 중심으로 방콕은 서울의 면적을 능가하는 규모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클럽을 옮겨놓은 듯한 번잡한 카오산로드와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차오프라야 강변... 콘크리트 도시 골목 사이로 수도복을 입은 맨발의 라마승의 발걸음이 보는 이의 심상을 차분하게 만든다. 이런 방콕에서 가장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시암(Siam)은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곳으로 거대한 쇼핑의 메카로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경쟁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이루어진다. 방콕에 있는 수많은 백화점 중에서 하이 소사이어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암파라곤, 그 안에 위치한 설화수 매장은 오픈 이후 해마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며 태국의 여심을 뜨겁게 만들고, 그녀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웠다.

### Highly acclaimed in the passionate country of Thailand

The hot air that touches the face and the deep scent of life at the tip of the nose feel much stronger in Bangkok, Thailand. Bangkok,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Thailand for more than 200 years, is a large city. It is bigger than Seoul, and its population is over 10 million. Its Khao-san Road is as crowded as a club, and the Chao Phraya River has the most beautiful scenery. The steps of barefoot Lama monks on the alleyways in this concrete-filled city calm viewers. Siam, the heart of Bangkok, is a great shopping mecca similar to Myeong-dong in Seoul. There, many multinational brands compete fiercely every day. Siam Paragon is the most high-end department store in Bangkok, with many customers from high society. Its Sulwhasoo store has been attracting more and more customers each year since it was launched because it ignites the passion of women in Thailand and let their faces bloom beautifu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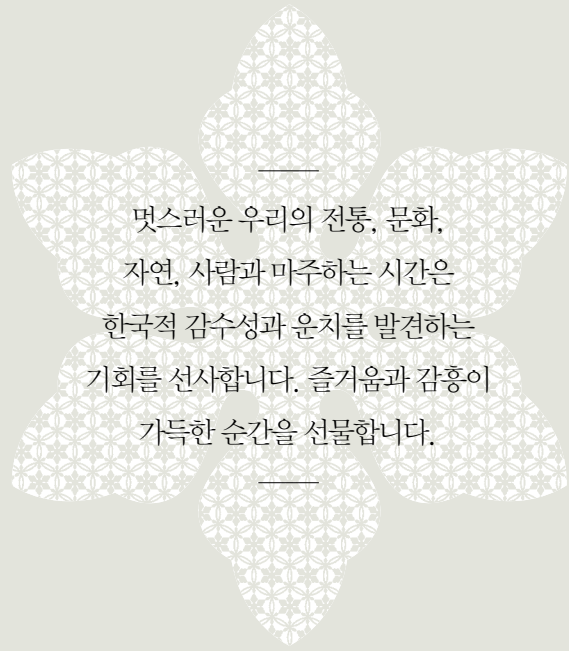
## 미소와 더불어 생기 넘치는 젊음을 선사하다

2012년 태국 방콕에 설화수 매장을 오픈하면서 설화수의 향기를 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설화수는 3년여 만에 최상의 품질을 가진 최고의 화장품으로 태국 내 최상류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메가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윤조에센스는 그동안 사계절 더위로 지친 피부에 깊은 영양을 선사하며 획기적인 안티에이징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특히 주름과 피부 처짐 등에 탁월한 효능을 선보이고 있는 진설크림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완벽한 커버력과 더불어 화사한 피부 톤으로 가꿔주는 퍼펙팅쿠션, 퍼펙팅쿠션 브라이팅닝 역시 스테디셀러로 꼽히고 있다. 고서에서 증명된 귀한 원료와 설화수만의 한방 피부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들로 역사성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전개하며 많은 셀럽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찾는 화장품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윤조에센스는 2013년 '콜레오 뷰티 명예의 전당'과 '코스모폴리탄 동남아시아 뷰티 어워드'에서 각각 더블 듀오 안티에이징 부문과 베스트 세럼 부문에서 최고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설화수는 현재 태국에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태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아시아 대표 뷰티 강국인 태국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S

왕궁과 사원에서 흘러나오는 아련한 불빛들은 태국 방콕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신구 문화가 부딪힘 없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리의 모습 또한 방콕에서 만나는 독특한 풍경이다.

## Smile and youth full of vitality

The fragrance of Sulwhasoo was first delivered to Bangkok, Thailand in 2012. In just three years, Sulwhasoo has earned the love of Thailand's high society with its premium-quality cosmetic product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 great hit in Asia, deeply nourishes skin tired from the hot climate all year for innovative anti-aging.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EX is particularly sought after because it is effective for wrinkle correction and skin lifting. Perfecting Cushion and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for flawless coverage and a radiant skin tone, are also considered steady-sellers. These products combine the precious ingredients proven by the medical classics of Korea and Sulwhasoo's unique Korean medicinal skin science, and have become must-haves for many celebrities and opinion leaders in Thailand due to the ongoing communication of its history and authenticity. As a result,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was named the best product in the Double Duo Anti-aging Division and the Best Serum Division of the Coleo Beauty Hall of Fame and the Cosmopolitan Southeast Asia Beauty Awards, respectively, in 2013. Sulwhasoo currently has 11 stores in Thailand and plans to reach out to more consumers in the country to solidify its foundation in Asia's beauty capital.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가



그 선율, 아름답게 깃들다  
Beautifully Permeated Melody

# Shin Zi A

신 지 아

'스미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우선 자신의 상상력에,  
테크닉의 시작이자 끝인 손가락에, 함께 연주하는 다른 악기에,  
들어주는 청중에게 스며드는 음악.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하고자 하는 음악이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먼저 노크한 쪽은 바이올린이었다. 네 살 꼬마 신지아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문을 열어줬다. 언니의 손에 들려 있던 바이올린은 낯선 방문객이 아니었다. 바이올린과의 동거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클래식을 사랑한 엄마가 배 속에서부터 들려준 선율이기도 하고, 언니가 하고 있으니 밥 먹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바이올린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마주한 바이올린은 도도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저희 집 좌우명이 ‘시작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자’이거든요. 어렸을 때지만 바이올린을 그냥 가지고 놀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죠. 매일 다섯 시간씩 연습했어요.” 엄마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것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워졌다. “조금 자라면서는 제 스스로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어요. 명절에 친척집에 가더라도 악기를 꼭 챙겼죠. 연습을 해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몰두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신지아가 됐다. 프랑스 롱 티보 콩쿠르 1위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콩쿠르 수상으로 보여지는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점점 깊어지는 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상상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요” 신지아는 마치 꿈꾸듯 연주한다. 그녀의 표정에는 곡의 희로애락이 들어 있다. 연주는 그 감정에 맞춰 공연장 안을 날아다니며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클래식 연주는 가사가 없잖아요. 그 곡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죠.” 그의 상상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공감하고 이해하

The violin knocked first. The four-year-old Shin Zi A naturally opened the door to her life. The violin in her sister's hand was not an unfamiliar visitor. That was how she came to live with the violin. “I just accepted it. It was the melody that I had heard in my mother's womb because she loved classic music, and it naturally seeped into my life, like eating rice and learning to talk, as my sister was learning to play it.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o do.” The violin, however, was aloof. She had to try hard to get close to it. “My family's motto is ‘Once you start something, do your best in it.’ I was young then, but the violin was not just given to me for me to play with. I was told that I had to do my best. I practiced five hours a day.” It was her mother who suggested it, but it soon became a part of her. “As I grew up, I felt awkward when I didn't practice every day. I always brought it with me even when I went to a relative's house for the holidays. I felt relieved only when I practiced.” The time of immersion piled in layers, making her what she is today. It is not just about the accomplishment of winning in many contests, including landing first place at Long-Thibaud Concours, France. The deepening sound enticed the hearts of more and more people. “This job requires a lot of imagination. You need extensive experience to have imagination.” Shin performs as if she's dreaming. Her face expresses the joy, anger, sadness, and excitement engendered by the music. The performance flies around the hall, telling the audiences stories, with various emotions. “Classical music has no lyrics, so I think a more detailed emotional expression is needed to show it in its entirety. That's why I imagine very specifically.” Her imagination was not created overnight. This

는 능력이라는 걸 일찍 깨우친 영민한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딜 가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 낯선 공기, 누군가의 다른 인생,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흡수해 바이올린에 녹여냈다. '순수 국내파 연주자'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이런 열린 태도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순수 국내파란 타이틀이 정말 좋아요. 유학은 지금이라도 혹은 나중에라도 더 배우고 싶으면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요.” 바이올린을 하면서 내내 생각한 것은 본인이 발 딛고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엘도라도를 꿈꾸며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K클래식의 선두에 순수 국내파 신지아가 있을 수 있었다. “물론 순수 국내파에 대한 기대, 시선 등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어깨가 무거운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배웠느냐, 어디에 사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온 세상의 문화가 손바닥 안에서 공유되는 때에 핵심은 태도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최고를 찾으려는 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느 곳에서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할 일을 하는 태도가 지금의 신지아를 만들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긍정적으로 뭐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항상 무대에서 연주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잠재 의식 속에 새겨져 현실화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믿음을

---

smart violinist realized at an early age that the ability to empathize and comprehend is essential for a musician, and she never lost her sense of curiosity about something new wherever she went. She absorbed everything that she saw, heard, and felt through the sceneries in front of her, through the unfamiliar air, through someone else's life, or through her travels, and she always reflected it in her violin performance. This is probably why she is known as a “locally trained performer.”

“I love to be called a ‘locally trained performer.’ I can always go abroad to study, now or later, but I haven't found the need to do so until now.” What she always keeps in mind is that she should do her best in her current position. The best thing that she has ever done was not to have wasted her time pursuing El Dorado, which is not even real. That is how Shin, a locally trained musician, has come to lead K-Classic, a genre that has started to catch attention. “People's expectations and assumptions of locally trained musicians are burdening, of course. I feel the weight on my shoulders. The expectations, however, have motivated me to work harder.” Nowadays, where you have been trained or where you live is not important. As the culture of the entire world is on your palms, the key is your attitude. The attitude of always striving to do her best, to find the best in herself, and to be tenacious and sincere wherever she is, with a positive view of the world, has made today's Shin Zi A. “My mom taught me to think positively all the time. I used to be very pessimistic all the time, but I always pictured myself performing onstage, and all of those pictures were engraved in my subconscious in the hope that they'd come true someday. I've always believed







늘 가지고 있어요.” ‘안 돼’, ‘어려워’보다는 ‘될 거야’, ‘할 수 있어’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신지아. 그 안에는 당연히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피나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 신지아는 오늘도 연습한다. 얼마 남지 않은 연인들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리사이틀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바이올리니스트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콩쿠르 무대에서 긴장하고 떨지 않으려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연습에 몰두했던 소녀는 아직도 무대를 위해 혼신을 다한다.

“제 연주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충실한 오늘에서 행복을 찾는 신지아는 늘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의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라며 신지아는 당부한다. “가까이 두고 자주 들으려고 해보세요. 연주자들의 감정과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익숙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연주는 바흐의 <샤콘>이었으면 좋겠다는 신지아. 온갖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나면 좀 더 깊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며, 어느새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상상하는 듯 표정이 아득해진다. 그녀의 아득한 눈빛을 보며 신지아가 들려주는 <샤콘>을 상상했다. 오래도록 음악을 사랑한 사람이 들려주는 한 곡의 선율, 그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S

that a new path will open for me when I live each day of my life to the fullest.” Shin always tells herself ‘It will come true’ or ‘I can do it’ instead of ‘I can’t do it’ or ‘It’s too hard.’ What’s hidden inside her, of course, is her unwavering belief that her dreams can come true. Also, Shin never stops practicing, whether for the upcoming Valentine’s Day recital or for some other performance, and she never fails to do all the other things that she has to do as a violinist. The girl who was fully engrossed in practicing all day except when she was eating so she would not get nervous in the contest is still doing her best for each and every performance. “I hope that I could console and make more people happy with my music.” Even though Shin seeks happiness in her everyday life, she knows that she cannot always be happy. That is why she wants to bring happiness to others’ lives with her music. Shin is certain that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will bring a person peace of mind. “Try to keep it near you, and listen to it more often. When you listen to live music that conveys the performers’ deepest emotions, you will feel your heart being comforted. When you get used to it, you will experience happiness, which you never expected to experience.”

Shin says that she wants her life’s last performance to be Bach’s <Chaconne>. Imagining her last stage, she said that she could deliver a deeper and more beautiful performance after going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of life. Looking at her deep eyes, I imagined Shin’s <Chaconne>. A piece of melody performed by a person who has loved music for a long time would emit a kind of beauty that is irreplaceable.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최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박송이 도움 주신 곳 데임(02-3444-2583), 디블루메(070-8289-1989), 자라(02-3413-9800)

# 전통을 더해 꾸민 일상의 위트가 빛나다

전통의 색감과 문양이 담겨 있는 작품들은 실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용품으로 여겨진다. 공간과 더불어 살포시 놓기만 해도 감각을 살려주는 우리네 '전통 꾸밈'.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왼쪽부터** 아카시아 원목의 핸드메이드 캔들 홀더는 이노홍, 변형이 가능한 한지 모듈 조명기는 유보영 작가 작품, 작은 집 모양 오브제는 강정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카키 가죽 펜 케이스는 타스크 비블리오텍, 팔각 화이트 캔들 홀더는 이재훈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화이트 세라믹 화기는 도슨트, 나무 나침반 사각함은 예술린 월넛과 가죽으로 만든 소반은 양웅걸 작가 작품으로 woongul.com.



**왼쪽부터** 솔 달린 블랭킷은 챔터원 패치 워크된 실크 쿠션, 꽃신 방식은 모두 장응복 작가 작품으로 모노컬렉션, 주문 제작이 가능한 베개는 달빛단풍, 경첩 장식의 거울은 이자희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바람개비 목베개와 텐셀 목베개, 색동 방식은 모두 강금성 작가 작품으로 빈컬렉션, 핑크 벨벳 쿠션은 이노홍, 그린 저그, 파플 잔, 블루 볼은 모두 박서연 작가 작품으로 정소영식기장, 민트 원형 옷칠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화이트 사이드 테이블 모두 움직임 작품(lumzikim.com) 으로 윤현헨즈, 그레이 패브릭 볼트 소파는 GUS 제품으로 덴스크.

## 전통 패턴으로 만들어진 리빙 아이템을 더하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거실 무채색의 소파 위에 무심한 듯 툇 던져진 쿠션들에서 전통의 미감이 피어오른다. 모던한 가구들과 잘 어울리는, 전통 패턴이 가미된 쿠션들은 과감한 듯 모던한 색채와 획기적인 외형과의 조합을 통해 더욱 트렌디한 감성을 자아낸다.



우리네 소재 속에 피어난 고운 색감을 담다

컬러풀이란 단어가 이렇게 전통 오브제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간색으로 표현되던 예전의 색감과는 다르게  
원색적이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색들이 작가와 만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독특한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포인트를 주는 리빙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기에 집 안에서 눈길이 자주 머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왼쪽부터** 겹쳐놓은 우드 접시는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오방색으로 만들어진 옷칠 에스프레소 잔은 정해조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친환경 가죽을 손바느질로 모양을 낸 가죽 오브제는 Lucky lok 시리즈로 문순원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골드 라인 장식 와인 잔 모두 철타원 화이트 트레이와 볼, 티포트 모두 아스티에 드 빌라트 제품으로 팀블룸.



### 현대적인 감성이 깃든 문양과 그림을 걸다

좋은 그림 한 점은 공간에 멋진 물론 힘을 불어넣기에 깊은 안목으로 신중히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의 맥을 이어오면서도 작가만의 감성이 그대로 녹아든 작품에는 엔드르핀을 솟게 만드는 위트와 놀라운 창의성까지 갖추고 있기에 바라보기만 해도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좌식 공간에 어울리는 높이와 크기가 서로 다른 오브제들의 믹스매치가 스타일링의 포인트다.

**왼쪽 페이지** 세라믹 머그잔과 트레이는 하사미 포르셀린 제품으로 챔터원 '福' 자가 새겨진 밥그릇은 만복당, 퍼플 디지털 불과 브라운 샐러드 볼은 이정미 작가 작품, 스트라이프 세라믹 화병은 김연지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매트한 핑크 컬러 머그잔은 지승민 작가 작품으로 우노헨즈, 손잡이 달린 우드 함은 루밍, 벽에 걸린 자수는 한정혜 작가 작품으로 니들스튜디오, 복주머니 패턴의 원단은 모노컬렉션

**오른쪽 페이지** 한지와 혼합하여 만든 비움과 채움(Emptying and Filling) 액자는 오관진 작가 작품으로 people.artmusee.com/ohkwanjin, 수록지를 접어 우드 프레임에 설치한 조명은 서밀하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소반은 표정현 작가 작품으로 루나스 플로우, 조각으로 배색된 라운드 쿠션은 달빛단풍, 나무와 도자기 상판으로 제작된 소반은 양웅걸 작가 작품으로 woonggul.com, 컬러 배색의 텐셀 무릎이불은 강금성 작가 작품으로 빈컬렉션







## 새벽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後苑 風景

시간 속에 묻힌 고요함으로 공간의 경간함을 느끼고 오래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역사의 위엄은 전율로 스며든다.  
이른 아침에 찾아간 창덕궁 후원에는 그날의 첫 손님을 맞이하는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하늘 위로 피어오른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창덕궁

푸른 소나무와 사계의 아름다움이 물빛에 어른거리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조형 원리에 따라 조성한 열십자 모양의 정자 부용정  
그 앞으로 네모반듯한 연못이 있고 중앙에 소나무를 심은 작은 섬이 하나 떠 있기에 사계절  
물빛에 어린 푸른 소나무의 기백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언뜻 앞 정자에 앉아 흘러가는 세월을 노래하네

한반도의 지형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지은 '반도지(半島池)'에 있는 정자 관람정  
부채꼴 선형 기와지붕으로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기에 바라볼수록 감탄을 자아낸다.  
곡선이 주는 유연한 아름다움과 멋을 알았던 선조들의 감각이 그대로 물들어 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굳건하게 지킨 생명력이 어라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굳건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후원처럼, 세월이 흘러도 눈가에 주름 대신  
생명력 넘치는 젊음을 선사해준다. 눈가 피부 고민을 다스려주는 아이크림인 설화수 섬리안크림은 효소 처리한  
6년간 홍삼 사포닌 성분이 눈가를 케어하고, 꿀과 감국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싸준다.



# 百味の 미감 속에 건강의 염원을 담다 The wish for Health in the Aesthetics of all Tastes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 속에는 진심을 더한 바람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우리네 백의 색깔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는 이의 건강과 풍요로운 복을 기원해본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백의민족'이라는 말처럼 백색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색깔이다. 많은 이들이 백색을 좋아하는 이  
유로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들듯이, 오복을 갖추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만든 백색 음식들에는  
만든 이가 지닌 희망과 기원이 넘실거린다. 따스한 덕담과 함께 몸과 마음을 녹여줄 복을 담은 요리  
들을 동서양의 재료들과 섞어 만든다면 먼 타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외국인 친구와 먹기에도 부  
족함이 없을 것이다. 음식을 차려 유희나 오락을 즐기고 또한 액을 면하는 풍속이 그대로 담겨 있  
는, 동서양의 재료로 함께 만든 백색 미감을 갖춘 음식들.

As you can see in the 'people in white clothes,' white is the color that represents the Korean  
people. Many people are fond of white because of its purity, and the food prepared with devo-  
tion and care for the five fortunes is filled with hopes and wishes of those who make it. If you  
can use the ingredients of the East and West to prepare dishes with good wishes to warm your  
bodies and hearts, they will be great to enjoy with your international friends who are celebrat-  
ing the New Year away from home. Here are the beautiful dishes prepared with ingredients  
from the East and West, which convey the folk customs you can enjoy and avoid bad luck.



산천야채샐러드  
'날' 것의 영양 그대로



생채는 계절마다 새로 나오는 싱싱한 채소를 익히지 않고 먹는 것으로, 진정한 자연주의 푸드라 할 수 있다. 느타리, 만가닥버섯과 눈꽃송이 나무처럼 얇게 썬 콜리플라워, 셀러리익을 넣어 만든 샐러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더불어 평탄한 삶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Mountain green salad with the 'raw' nutrients

Fresh greens are seasonal greens that are enjoyed raw and fresh, making them the true natural food. The salad prepared with beech mushrooms, thinly sliced cauliflower that resembles snowflake trees, and knob celery pursues harmony with nature and wishes for a good life.

장수를 기원하는  
흰 국수와 아스파라거스



예로부터 국수는 장수를 기원하는 경사스러운 날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 음식이다. 게다가 저칼로리 음식으로 입맛이 다른 세계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재료이기도 하다. 흰 국수와 국수처럼 얇게 썬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콩국의 느낌으로 우유를 부어 먹을 수도 있다.

White noodles and asparagus for longevity

Since the olden times, noodles have been a special food for longevity that you could taste only on special days. It has been lov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as it is a healthy low-calorie food. White noodles with thinly sliced white asparagus strips can be enjoyed with milk that is similar to soy broth.



버섯크림조랭이떡  
탱글한 식감, 고소한 풍미의



작은 눈송이처럼 하얗고 탱글한 모양을 가진 개성의 향토 음식인 조랭이떡이 주인공이다. 시원한 국물 요리가 아닌 서양의 생크림을 이용하여 만들었기에,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외국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나눠 먹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해본다.

**Plump texture and great flavors of Joraengi rice cakes in mushroom cream**

The main ingredient of this dish is the Joraengi rice cake, which is a native food of Gaeseong that is as white and firm as a small snowflake. As the dish is prepared with Italian cream sauce instead of the hearty broth of Korea, you can share it with your international friends who are celebrating the New Year in Korea, to wish them a good year.

**버섯크림 조랭이떡  
Grilled Chicken with Ginseng**

**재료** 조랭이떡 200g, 양송이버섯, 생크림 한 컵 반, 양파 한 개, 버터와 소금 조금

**만드는 법**

1 조랭이떡은 살짝 삶아 채에 받쳐놓는다. 나중에 한 번 더 프라이팬에 넣고 끓이므로 너무 푹 삶지 않도록 한다. 2 달궜진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양파를 먼저 넣고 볶다가 썬 양송이를 넣고 함께 볶는다. 3 2에 분량의 생크림을 붓고 끓이다가 채에 받쳐둔 조랭이떡을 넣는다. 너무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끓이는 것이 포인트. 4 다 끓이면 불을 끈 상태에서 기호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나 그뤼에르 치즈를 넣어 섞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낸다.

**Ingredients** Joraengi rice cakes (200g), button mushrooms, a cup and a half of fresh cream, one onion, a bit of butter, and a pinch of salt

**How to make**

1 Boil the Joraengi rice cakes until they are slightly cooked, then drain them over a colander. Do not cook them thoroughly as they will later be cooked further on a pan. 2 Add the butter to a heated pan and cook the sliced onions and button mushrooms. 3 Pour all the fresh cream into the mixture in Step 2 and boil it. Then add the Joraengi rice cakes in the colander. Make sure the sauce does not dry up. 4 When the rice cakes are cooked, turn off the heat and add Parmesan or Gruyere cheese for taste. Finish with salt.





# 두 개의 도시, 빛으로 낭만을 즐기다

## Seoul & New York

서울 & 뉴욕

사는 사람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 분위기가 갖든 감성 낭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상향으로 여겨지는 곳, 서울과 뉴욕 이야기.

에디터 권지애 사진 이은선, 코비스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의 마천루를 선사하는 서울의 빌딩숲. 엔서울타워와 도심 속 스케이트장 그리고 물빛 사이로 아련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청계천로에서는 감성의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늦은 오후가 되어 태양이 일찌감치 모습을 감추고 나면 거리에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수천, 수만 개의 조명은 마치 거대한 밤바다 위, 밝은 불을 밝히는 어선과도 같은 눈부심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져 있던 스위치를 살며시 누른다. 이렇듯 밤이 되면 빛으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도시, 서울과 뉴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울과 맨해튼이란 도시는 참 많이 닮았다. 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 안에서 다른 역사를 품고 살아 오고 있지만, 두 도시는 화려한 듯 소소하며 웅장한 듯 소담한 멋을 간직하고 있다. 빌딩숲으로 마천루를 형성하고 있지만 강과 공원 등을 품고 유유자적의 시간을 선사하며, 최첨단 트렌드와 미래형 콘텐츠를 품고서도 전통과 빈티지, 복고의 감성 등으로 인간적인 소통을 도모한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포화된 좁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도시만의 소통 방법으로 세대를 보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죽기 전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도시로 맨해튼을 꼽는다. 서울 역시 한국을 둘러싼 많은 아시안 사이에서 '이상향의 도시'로 마음속에 담겨 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이상향의 도시, 바로 서울과 맨해튼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밤을 선사하는 맨해튼의 야경은 또 다른 이상향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여러 조명 색으로 변신을 꾀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울에만 오픈하는 센트럴파크 스케이트장.

When the sun goes down fast in late afternoon, the streetlights turn on one after another. The hundreds and thousands of light bulbs brightly light up the dark, like the fishing boats that light up the seas at night and quietly turn on the switches in the hearts of people. Seoul and New York are cities that turn into different places at night with light. Precisely speaking, Seoul and Manhattan have much in common. They have different histories in different places with the Pacific Ocean in between, but they both cherish beauty that is glamorous yet trifling and magnificent yet humble. They have blocks and blocks of skyscrapers, but people enjoy their free time by the rivers and in the parks. They have the latest trends and future-oriented contents, but their people communicate through tradition, vintage and retro sensibility. In these crowded cities saturated with people, generations coexist with the means of urban communication. Many people pick Manhattan as a city they must visit once in a lifetime. Seoul is also an 'ideal' city in the hearts of many people in Asia.





6000여 년의 시간을 달려온, 서울의 중심거리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닌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경복궁과 북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조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광화문 광장.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 뉴욕 맨해튼의 타임 스퀘어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간판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마치 가상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을 일으킨다.

잘 알다시피 맨해튼에는 센트럴파크, 브라이언 파크, 워싱턴 스퀘어 가든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포진되어, 회색빛 도시를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서울 또한 한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이 많고, 여기에 지형적으로 낮은 구릉성 산지인 덕에 산을 끼고 있는 서울은 사계의 오색찬란한 멋을 그대로 품고 있다. 두 도시에서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은 바로 골목길에 있다. 이름 난 관광도시이기에 대로변을 따라 화려하게 장식된 글로벌 브랜드의 간판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한 블록, 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도시는 전혀 다른 멋을 품고 있다. 바쁜 일상으로 빠른 삶을 살고 있는 뉴욕과 서울리스타들의 리얼 낭만이 곁들여진 멋과 맛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잘못 타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도쿄의 지하철과는 달리 두 도시의 지하철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이어나 처럼 빠르고 정확하다. 서울 지하철은 한강을 가로지르고 뉴욕 지하철은 이스트 리버와 허드슨 리버를 가로지르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시인들의 삶을 이동시킨다. 답답한 도시에서 탈출해 때때로 자연에 숨곤 하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 회귀 본능의 원칙을 자극하는 두 도시는 오늘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한다. S

Manhattan has many small and large parks, including Central Park, Bryant Park, and Washington Square Garden, which add diversity to the gray city. Seoul also has many parks along Han River and is surrounded by many mountains because it is topographically a low basin. It boasts colorful beauty each season. Another charm of both cities is their alleyways. As they are popular tour destinations, their streets are filled with gorgeously ornamented signs of multinational brands, but you will see completely different faces when you walk a block or two away from the main avenues. You can taste the real romantic beauty and tastes of New Yorkers and Seoulistas, who are always busy. The subways of Seoul and Manhattan are as fast and reliable as hyenas that dash through the cities. The subways in Seoul run across Han River, and those in New York run across the East River and Hudson River to transport urban dwellers from early in the morning to late at night. You sometimes escape from the city and hide in nature, but you cannot resist your instinct to come back to the city because it never ceases to diffuse bright lights.



## 피부, 건강한 윤기를 더해 균형을 되찾다

피부는 일교차의 변화나 달라진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 빠르게 적응 모드에 돌입한다. 하지만 자체의 적응력만으로는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겨우내 차가운 바람과 낮은 온도에 시달린 피부를 정상으로 되돌릴 설화수의 견고하고 탄탄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일정한 규칙으로 보이는 주름과 조각의 조화로 감탄을 자아내는 'Silk Mesh to Mesh'는 소진숙 작가 작품.

Photo Tom Grottel(browningolla arts)

### 윤조에센스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여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 주는 부스팅 에센스로 기존 대비 180% 농축된 저분자\* 성분이 노화에서 비롯된 메마른 피부의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의 총체적인 피부 균형을 맞추어준다. 연약한 피부를 고려한 처방으로 민감한 피부 타입의 고객도 첫 단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How to Use**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윤조에센스를 손바닥 전체에 고루 묻히고, 볼부터 이마, 눈가 순서로 꼭꼭 눌러 흡수시킨다.



자연이 가진 소소한, 즉 떨어진 가지, 열매, 나무껍질 등을 모티브로 만든 적동 브로치는 신혜정 작가 작품.



자음수와 자음유액  
Essential Balancing Water EX & Emulsion EX

젤 타입의 한방 화장수인 자음수는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분히 적셔 한층 더 총명한 촉촉함을 선사하며, 부드럽게 퍼지고 빠르게 흡수되면서 촉촉함은 오래도록 머물러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피부에 매끄럽게 퍼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면서 촉촉함만을 남기는 소프트 로션인 자음유액은 윤조에센스, 자음수의 성분 및 사용감과 어우러져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잡아주고 피부 기분을 탄탄히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How to Use** 윤조에센스 사용 후, 자음수 → 자음유액의 순서로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톡톡 톡 두드리듯 발라준 후 흡수시킨다.



직선과 곡선을 작가의 감성으로  
단순화하여 만든 브루치는 심현석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윤결에센스  
Essential Revitalizing Serum EX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인 윤결에센스는 낮에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효과를, 밤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톰한 텍스처가 피부 결에 채워지듯 매끈한 질감으로 피부 속을 촘촘하게 채워 계속되는 피부 자극에 보호막이 되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에멀션(로션) 사용 후, 따뜻한 손바닥에 적당량을 펴평하여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발라준다.



공간과 형태의 반복으로 기묘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은 소재  
큐브 목걸이는 주소원 작가 작품.



탄력크림  
Essential Firming Cream EX

새롭게 선보이는 탄력크림은 이름에 걸맞게 탄력의 효능이 강화되었다. 근본적인 탄력 개선을 위한 설화수의 새로운 처방인 지선체™가 시간의 흐름도 견뎌내는 탄탄한 탄력을 선사한다. 또한 손끝부터 느껴지는 탄력감의 텍스처가 매끈하게 마무리되고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 만족도를 더욱 높여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섬리안크림 사용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바르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흡수시킨다.



가녀린 나뭇가지와 거기에 달려 있는 잎을 소재로 한 은 소재 브로치는 신혜정 작가 작품.



**윤조에센스** 고전 한방 책에서 찾은 다섯 가지 귀한 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처방한 자음단™과 설화수의 독자적인 신규 기술로 한층 더 강력해진 부스팅 효과를 선보이고 있다. 설화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টে็ม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 여성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다.

**자음수와 자음유액** 설화수의 기본 라인은 '조'한 피부를 보듬어줌으로써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만큼 자음수와 자음유액은 기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고마운 제품들이다.

**윤결에센스** 고농축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으로 윤택한 피부로 만들며 탁월한 발림성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탄력크림** 탄력 기능이 강화된 탄력크림은 지선체™ 성분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피부 탄력을 단시간 안에 끌어올려주는 제품이다. 턱 아랫부분까지 고르게 펴 바르고 손바닥과 손목이 만나는 부위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듯 사용하면 한결 달라진 탄력감을 느낄 수 있다. 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This product has a powerful boosting effect with its JAUM Balancing Complex™, which has been formulated with five precious ingredients found in the classics of Korean medicine at an optimal ratio, coupled with Sulwhasoo's new original technology. It is widely loved by many women in Korea and abroad.

**Essential Balancing Water EX and Emulsion EX** Sulwhasoo's Essential Line refines the skin with a balanced condition to restore its natural beauty. The line's Essential Balancing Water EX and Essential Balancing Emulsion EX are precious products that convey the importance of the basics.

**Essential Revitalizing Serum EX** As its name says, this product adds radiance to the skin and naturally restores its youthful texture. As a highly concentrated formula, it quickly absorbs into the skin upon contact and instantly refines it with a uniquely light texture.

**Essential Firming Cream EX** Essential Firming Cream EX, with an improved firming function, is formulated to fortify the bearing capacity of the skin with JISUN Firming Complex™, to quickly restore the resilience of the skin. Smooth it evenly down to your chin, and use the part of your skin where your palm meets your wrist to push up your entire face, to feel the refinement of your skin in that area.

## 감동 가득한 소식을 전합니다

###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한 설화수 VIP 고객 행사

설화수는 11월 30일 역삼동 더라움(The RAUM)에서 설화수 VIP 고객과 함께 '설화수 오감五感 콘서트 with 금난새'를 개최했다. 100여 명의 VIP 고객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설화수 VIP 멤버십 혜택의 일환으로 브랜드 로열티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설화수 전진수 상무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설화수의 철학, 역사, 원료 스토리 등을 설명하는 브랜드 프레젠테이션,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설화수의 헤리티지인 인삼을 주제로 한 저녁 정찬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VIP 고객들은 "브랜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해설이 있는 콘서트를 통해 감미로운 힐링을 경험하였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설화수는 앞으로도 VIP 고객들을 위해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의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다.



### 전 세계에 보낸 설화수의 따뜻한 희망 메시지

설화수는 12월 7일, 홍콩 침사추이 레이디 맥리호스 센터(Lady MacLehose Centre)에서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인 '2015 설화수 나눔 이불 자선 행사(Sulwhasoo Hundreds of Families Quilt)'를 진행했다. 2010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설화수 나눔 이불 자선 행사'는 이웃들이 100개의 천 조각을 모아 이불을 만들어주면 신생아가 무병장수한다는 동양의 설화에서 착안한 사회 공헌 활동이다. 올해 자선 행사는 'Sulwhasoo Hundreds of Families Quilt - Share the Wish for Warmth(雪花百家被 祝願添温暖)'를 주제로 홍콩 배우 곽부성, 디자이너 지미추 등 유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곽부성과 지미추는 직접 디자인에 참여, 기부한 이불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콩 설화수는 나눔 이불 자선 행사를 맞아 10월 29일부터 순행클렌징폼, 여운팩, 옥용팩으로 구성된 채리티 키트(Charity Kit) 2500개를 한정 판매했으며, 약 70만 홍콩달러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치홍재단에 기부했다. 설화수 이불과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홍콩은 설화수의 첫 번째 글로벌 진출 국가로, 설화수는 침사추이 캔톤로드 및 코즈웨이베이 등의 주요 매장에서 최고급 수준의 제품과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콩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TV 광고와 같은 별도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음에도 설화수는 홍콩 상류층을 비롯해 중국 관광객들까지 꼭 구매해야 할 '명품 위시리스트'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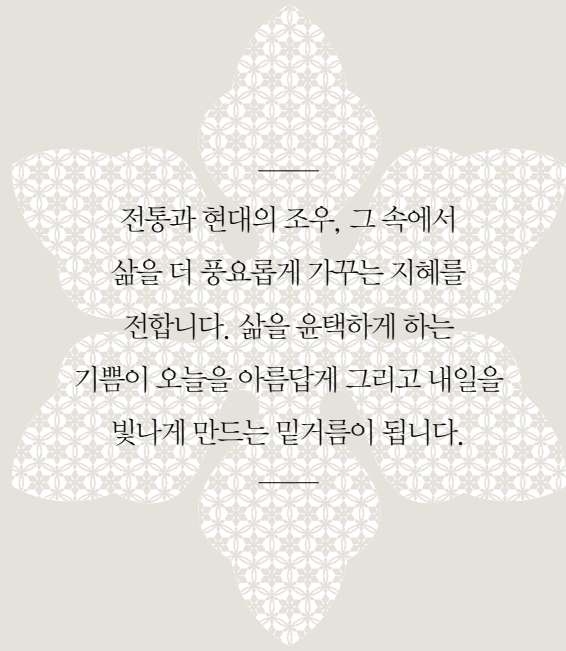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채울 때  
비로소, 피부는 힘있게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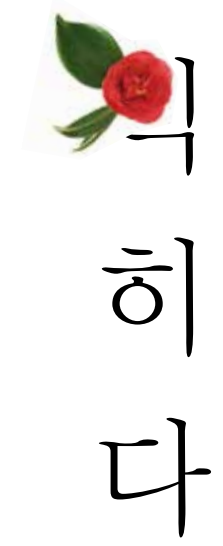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은 뿌리와 열매까지 모두 사용할 때 피부에 전해지는 효능이 강력해집니다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풀어넣어 피부를 힘있게 되돌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설화수의 세계 최초 바이오컨버전 기술이  
인삼 효능성분을 피부 깊이 흡수시켜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되돌리고, 피부 속부터 윤택한 기운을 차오르게 합니다  
인삼의 강한 생명력을 피부 속까지 채울 때, 피부는 다시 힘있게 살아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두움다



# 자연의 아름다움, 펜 끝에서 만발하다

## 식물 세밀화

흐드러진 꽃잎, 탐스러운 열매, 싱싱함이 살아 있는 잎과 줄기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묘사하는 식물 세밀화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한다. 기본 선을 긋는 것에서부터 채색까지, 세밀화를 그리며 느끼는 즐거움을 전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비손공방

세밀화는 세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한 작은 크기의 그림을 말한다. 특히 식물 세밀화는 16세기 벨기에에서 시작해서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처음에는 회화로서의 가치보다 기록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중에서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태니컬 아트'라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남산 하얏트 호텔 근처에서 보태니컬 아트, 즉 식물 세밀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꽃 그림이 가지런하게 실재를 장식하고 있는 비손공방이다. 매일 이곳에서는 다양한 식물의 삶이 드로잉 노트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올해로 10년째 비손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길명희 대표는 식물 세밀화가 주는 이로운 것은 자연의 생명력을 보고 느낄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라 말한다.

“세밀화를 그리려면 식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표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꽃과 풀들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그것들과 교감하게 되지요.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안정된 심신 상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은 큰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꽃, 잎, 열매, 겨울눈, 뿌리까지 식물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린다

식물 세밀화는 식물의 세부를 정밀하게 관찰해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묘사하는 것이다. 대상을 그릴 때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잎에 돌아난 솜털 하나하나, 꽃잎 표면의 매끄럽거나 거친 질감, 뿌리에 묻은 흙의 양감까지도 스케치하고 정교하게 채색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화를 그릴 때 식물의 잎과 줄기, 꽃은 물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꽃술이나 잎맥까지도 그리는 사람의 섬세한 눈길이 닿을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식물 세밀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의 미묘한 특징이나 성격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종류의 꽃 두 송이가 놓여 있더라도 그 한 송이가 한 송이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인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잎이 줄기에 어떤 모양과 배열로 붙어 있는지, 수술과 암술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꽃잎은 어떻게 포개져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형태는 물론 식물이 가진 자연의 색감을 오롯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배우기

- 1 준비물: 스케치 노트, 연필 또는 샤프펜슬, 지우개, 색연필 루페(lupe, 확대경)
- 2 대상을 선택하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 3 대상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루페를 활용해 관찰하며 밑그림을 완성한다.
- 4 완성한 밑그림에서 지우개를 사용해 흑연 가루를 꼼꼼히 제거한다.
- 5 채색에 필요한 색연필 컬러를 골라 채색을 시작한다.
- 6 명암을 주며 채색을 마무리해 완성한다.

**비손공방:**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식물 세밀화를 배울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34-4 문의: 02-797-7903)

발견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 그림은 마치 근접 촬영을 한 사진이 실린 식물도감을 보는 느낌을 전달하며, 실제 식물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또 사진으로는 표현되기 어려운 아날로그적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담겨 있다.

식물 세밀화 그리기 실전은 기본 선 긋기부터 시작한다. 예전에는 주로 연필을 사용해 세밀화 특성상 자주 뾰족하게 깎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얇고 세밀한 표현이 수월한 샤프펜슬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린다. 선 긋기가 능숙해지면 스케치와 세부 묘사를 배우고, 그다음에 명암법과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방법, 마무리하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모든 배움이 마찬가지로지만 식물 세밀화를 그리는 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에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숙련되기 전까지는 유명한 식물 세밀화 작품을 교재 삼아 연습하고, 숙련된 후에는 야외로 나가서 직접 실물을 보고 그릴 수 있다. 특히 야외로 나가 관찰하며 그리는 활동은 계절의 흐름, 주변 자연의 모습, 꽃에 담긴 일화나 꽃말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등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소중함과 애뜻함을 일깨운다.

실내에 생기와 온기를 불어넣는  
식물 세밀화 꾸밈

식물이 자생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이로운 순간을 정성으로 표현해내는 식물 세밀화는 갯빛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보내며 자연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정서적인 치유와 위안을 선물한다.

세밀화를 그리는 시간은 물론 식물 세밀화를 집 안에 들이는 것도 힐링의 순간이 된다. 식물을 모티브로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보태니컬 인테리어는 식물 세밀화가 담긴 각종 프린트와 커튼, 식탁보, 쿠션 등의 패브릭 소품, 도자기 등을 집 안 꾸미기에 활용한 것이다. 자신이 그린 식물 세밀화 여러 개를 활용해 액자를 만들어 한 벽면을 채우면 그 어떠한 명화보다 집 안의 분위기를 살리며 의미 있는 인테리어가 될 것이다. 또 자연의 모양과 색을 담은 식물 세밀화는 한자리에 오래 놓아두어도 쉽게 싫증 나지 않는다.

식물 세밀화는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는 설렘,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즐거움, 치유와 안정을 얻는 이로움 등 손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되어준다. 굳은 의지와 많은 준비가 없어도 흥미로운 세계로 초대한다. S



## 환하고 둥근달처럼 As bright as the Full Moon

너그러운 선과 담백한 아름다움을 가진 달항아리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영감靈感이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멋이 공존하는 달항아리의 넉넉한 미학.

에디터 윤연숙 도음 국립중앙박물관, 진선갤러리

생긴 모양이 보름달과 같이 둥글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달항아리. 예로부터 우리 세시풍속에서 보름달이 가지는 의미는 귀하고 컸다. 정월대보름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날로 이날 선조들은 달맞이를 나가 건강과 풍년, 다산 등을 기원했다. 달은 여신女神, 대지大地를 의미하며 풍요의 원천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 보름달을 닮은 달항아리는 둥근 모양과 온기를 품은 은은한 유백색, 다소곳한 입과 굽이 조화를 이뤄 고고한 멋과 넉넉한 느낌을 전한다.

보물寶物 1437호 백자 달항아리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의 어느 달항아리와 다름없이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 몸체는 완전히 둥글지도 않으며 여유 있는 둥근 모양으로, 조선 백자의미를 대표하는 잘생긴 항아리로 꼽힌다.

달항아리는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여 완성한다. 그 때문에 좌우대칭이 맞지 않지만 이러한 조형 특징은 오히려 달항아리 특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예술가들은 달항아리의 미학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현하고 있다.

조각가 김병진은 미국의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로 달항아리 형상을 조각해 <Pottery-Love> 연작을 탄생시켰다. 흙 대신 철로 만든 몸체에 유백색 대신 파란색 옷을 입었지만 달항아리가 가진 고유한 정서는 그대로 전해진다. 시대가 흐르면서 예술은 기교를 입고 더욱 복잡해졌지만 달항아리는 여전히 담담하고 단순하게 기품 있는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S

The moon jar has been so named because it is as round as a full moon. In Korean folk culture, a full moon was very significant. The Lunar New Year's Day was a symbolic day for health, a good harvest, fertility, etc. for our ancestors, so they went out to greet the moon and wish everyone good fortune. The moon represented a goddess and the land as a source of abundance. The moon jar, shaped like a full moon, is elegant and affluent-looking with its round shape, warm off-white coating, and modest mouth and heel. The white porcelain moon jar, which is Korea's Treasure #1437, was created in the 17th century and was initially used to contain food, as with all other moon jars created at that time. Its body is not completely round, but has extra space. It is a well-made jar that represents the beauty of Joseon's white porcelain.

The top and bottom of a moon jar are made separately and then attached together. This is why the jar is not perfectly symmetrical, but this characteristic has become the moon jar's unique natural beauty. For this reason, many artists reproduce the beauty of the moon jar in their own ways. Sculptor Byung Jin Kim has created the 'Pottery-Love' Series by carving a moon jar in the shape of the famous 'Love' of Robert Indiana, an American pop artist. The jar's body, made of steel instead of earth, is blue instead of off-white, but still shows the original sentiment of the moon jar.



<백자 달항아리(白磁大壺)>, 보물 1437호, 높이 41cm, 17세기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Pottery-Love(130902)>, 김병진, steel & car paint, 120×130×14cm, 2013





## 이야기가 흐르는 시간

그림 에세이스트 이주은

조곤조곤한 말투로 그림을 통해 위로와 위안을 건네는 그림 에세이스트 이주은 교수. 그가 꺼낸 낡은 슬라이드 프로젝터에는 그의 유년 시절이, 대학 시절이, 첫 강의 때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최근 예술 콘텐츠에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중의 호응도 높다. 이주은 교수는 강단에 올라 그러한 문화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다.

“예전에는 어떤 정보나 사실들을 그냥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제나 배경, 시간과 장소 등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와 연관, 즉 맥락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양한 시각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루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서일까? 이주은 교수의 애장품은 그의 추억과 이야기가 녹아 있는 슬라이드 프로젝터다. 디지털 카메라와 빔 프로젝터의 보급으로 지금은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15년 전만 해도 슬라이드는 교육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피사체가 가진 본래의 색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하고 사물의 세부나 구조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관찰·인식시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사용했어요. 작품을 접사렌즈로 찍은 후 슬라이드를 만들어 수업에 이용했어요. 요즘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 작품 이미지를 CD로 판매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쉽게 이미지를 구하고 보여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시를 보러 갈 때마다 꼭 전시 슬라이드 세트를 구매하곤 했지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그의 슬라이드 프로젝터는 1950년대생이다.

일부러 중고품이나 골동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 이 교수는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사용하기 위해 슬라이드 필름으로 피사체를 담았다. 대학 시절 배낭여행 때도 그의 캐리어에는 슬라이드 필름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제게는, 슬라이드 프로젝터는 자연스러웠어요.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사용할 일도 많았고요. 제게는 지난 시절 추억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물건이지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제 연구실에 놓여 늘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이주은 교수는 서양미술사를 다루지만 우리의 옛 규방 소품들에도 관심이 많다. 경대와 화장도구, 반질고리 등의 형태와 무늬, 색깔은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옛것을 현대에도 쓰임새 있게 재해석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아트 상품을 개발하는 설화수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보았단다. 다수의 저서를 통해 그림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던 이주은 교수. 그림을 미술사나 문화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림을 보게 해, 공감과 감흥을 선사하는 그의 저술 활동은 올해도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해 음식 문화와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실은 <미감>을 펴낸 것처럼, 단순히 미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화장이나 의복 문화 등 미술과 일상의 간극을 줄이고 재미있게 풀어낼 기획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 삶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의 이야기 말이다. S





〈발화發花 花는 꽃으로 피어나다〉. 모노컴플렉스, 아크릴 튜브, 아크릴 패널, 아크릴 봉, LED 조명, 나무 베이스, 330×240×240cm, 2015



〈환상 속에서〉. 오유경, 폴리카보네이트 튜브, 철에 분체도장, LED 5개 모듈, 가변크기, 2015

## 익숙한 이야기와 새로운 시선의 콜라주

이토록 새삼스러운 전사가 또 있을까? 현대미술 작가들이 백일홍 설화의 행간에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친숙한 이야기를 아트웍으로 만나는 기쁨을 건넌 〈2015 설화문화전〉 다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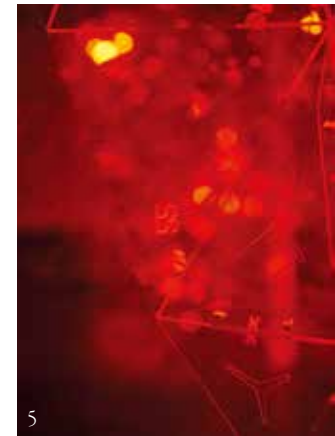
에디터 하예진 사진 문성진

‘#설화문화전#백일홍이야기#전시스타그램#’,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설화문화전 해시태그다. ‘전시스타그램’은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로 ‘전시’와 ‘인스타그램’을 합쳐 만든 단어. 지난 연말 ‘#전시스타그램’ 검색 결과에서 단연 돋보이는 콘텐츠는 설화문화전이였다.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남동 네모갤러리에서 열린 2015 설화문화전에서는 전통 설화 백일홍 이야기를 재구성한 현대 작가 11팀의 작품을 소개했다. 설화문화전은 설화수의 문화 메세나 활동으로 브랜드의 뿌리이자 영감이 되어준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 전시다. 9회째를 맞이한 설화문화전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했다. 그 모태는 2003년 선보인 ‘설화문화 클럽’, 설화수의 주관으로 4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우리 문화 지킴이로 활동한 문화 모임이다. 2006년, 문화

재 복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경매인 ‘설화문화의 밤’에서도 설화문화 클럽이 중심이 되었다. 사진가 배병우,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등 8인의 문화인이 ‘한국의 아름다운 색’을 주제로 창작한 작품을 판매했다. 이렇게 출발한 ‘설화문화의 밤’은 2009년부터 설화문화전으로 발전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다. 설화문화전의 기본 철학은 예술을 매개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외면과 내면을 균형 있게 가꾸는 홀리스틱 뷰티를 지향하는 설화수의 가치를 이어받았다. 설화문화전은 현대미술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호출하여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예술로 탄생시킨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돕는 가교로서 쌓아온 설화문화전의 정체성이자 우리 문화에 대한 설화수의 고집스러운 신념이다.

\* 해시태그: SNS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나타내는 수단.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으로 #뒤에 특정 단어를 넣은 #특정 단어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1 <황금 길>, 최성임, 철망, 와이어끈, 금박, MDF 금박작업, 250×214×993cm, 2015  
 2 <오해>, 부지현, 흑경, 폐집어등, LED, 수조, 철, 먹물, 소금, 비닐, 모터, 포그 머신, 245×200×1000cm, 2015  
 3 <공무도하(公無渡河)>, 김채원, 혼합 매체(커피 스틱, 전선, 온도변화 페인트, 온풍기, 동작 센서), 300×500×350cm, 2015  
 4 <달빛도 어두운 밤>, 윤민섭, 플라스틱, 가변크기, 2015  
 5 <송고의 공간-붉게 곱슬은 존재>, 이대송,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합성 판재, CNC 재단, 알루미늄 리벳 접합, 와이어 설치, 250×300×800cm, 2015

설화문화전의 아름다운 행보는 2015년에 의미를 더하였다. 기존 설화문화전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로 전통 장인의 공예품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이면서 설화수가 가진 고전적이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함께 부각했다. 반면 2014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 작가와의 협업하여 시야를 넓혔다. 단 순히 전통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시각에서 전통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예년에 비해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주제의 변주다. 지금까지 백, 흙, 활, 활 등 하나의 주제 안에서 전통을 관통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면 '2015 설화문화전'의 선택은 '설화'. 그것도 애뜻한 사랑 이야기로 오래도록 구전되어온 백일홍 설화를 전시 주제로 채택했다. 함축과 상징이 많은 설화의 특성상 이야기 속에 내재된 알레고리와 서사가 또 다른 주제로 변용되었다. 선과 악, 다짐과 약속, 만남과 이별, 죽음과 환생 등 설화 속 그 어떤 은유라도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여기에 작가들이 서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화의 상징적 소재들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서술했다. 설치 공예 그룹 모노컴플렉스, 인터랙티브 아티스트 팀보이드, 건축가 이대송, 디자이너 서동주, 설치미술가 윤민섭, 김채원, 부지현, 오유경, 최성임, 작곡가 도재명, 일러스트레이터 디에이즈 등 주목 받는 현대미술 작가 11팀이 함께했다. 주로 젊은 신진작가가 참여했는데, 재기 발랄한 시선으로 한국적인 소재를 재탄생시켜 젊은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설화문화전이 '젊어졌다'는 평가가 이러한 변화에 응답했다. 우선 전시 관람객의 연령층이 눈에 띄게 다양해졌다. 기존 전시가 미술계 종사자나 전통문화 발전 후원에 앞장서 온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주목 받았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젊은 연인부터 학생까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관람객의 연령층이 넓어졌다. SNS상에서도 설화문화전에 대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확산되었다.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설화를 소

재로 채택하여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했다는 반응이 그득했다. "잘 아는 백일홍 이야기를 아트워크로 만나니 재미있다", "생각지 못한 독특한 작품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니 설화가 더 아련하게 느껴진다"는 평이 따랐다.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체험하며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도 눈에 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네모갤러리의 외벽을 그래픽 이미지로 꾸민 서동주 작가의 <이야기들>은 포토 월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기를 끈 촬영 스폿.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 작품이 되어 전시의 얼굴로서 관객을 맞이했다. 부지현 작가의 <오해>는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 설치미술이다. 매일 오후 3시마다 천장에 매달린 집어등이 떨어져 깨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해서다. 작품이 날마다 점진적으로 모습을 달리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깨어진 유리 파편이 켜켜이 쌓여 전시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의 무덤을 형성해나가는데, 관객들은 변화를 관찰하고 수용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를 느꼈다. 점점 더 무덤의 형태에 가까워져 가는 작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시를 다시 찾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정도다. 이 밖에도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백일홍 설화를 한 곡의 음악으로 표현한 사운드아트 등 다채로운 작품이 백일홍 설화의 스토리라인을 따라 전시되었다. '2015 설화문화전'은 스토리가 있는 체험형 전시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전시로 거듭났다.

설화문화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재치를 전하려는 의지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현대 작가에게 과거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 내면과 외면 등 다양한 관계의 공존에 대한 탐구를 거듭할 것을 기약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미술을 잇는 문화 소통의 장으로서 보다 단단히 의미를 가꾸어 돌아올 설화문화전의 도약을 기대해도 좋다. S



## 오색찬란한 기쁨으로 물들다

튀지 않은 듯, 눈을 편안하게 하는 전통 간색인 오방색, 새해의 복을 기원하며 우리 생활 속으로 살포시 들어왔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음식을 담아도 좋고 주고 싶은 작은 선물을 담아도 좋을 듯, 직사각 비단 차 바꾸니는 박유진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주는 이의 감각이 빛나는 소품이다. 오방색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명함 케이스는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생활용품이지만 예쁜 색감으로 장식품으로도 손색없다. 작은 버전이 달린 귀여운 비늘꽃이는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설날이 되면 곱게 옷장 속에 걸어두었던 설빔으로 색동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어 무병장수하는 삶을 살기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옛 여인들의 숨씨와 숨결이 가장 아름답게 승화된 색동과 조각보 등은 예로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오방색을 활용한 물건들입니다. 그렇기에 깊은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전통의 색을 접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오색 만물이 협력하여 복과 상서로움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담긴 오방색은 선조들의 지혜와 미의식이 집약되어, 마치 창조적인 예술품을 보는 듯합니다. 다소 칙칙할 수 있는 겨울 공간에 오방색 패턴이 담겨진 리빙 오브제나 패션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전체 스타일에 화려함을 더하고 오방색에 서린 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S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작은 것 하나에도 한국인만의 감각이 돋보인다. 길쭉한 지는 물론 길이감 있는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한정혜 작가 작품으로 니들스튜디오.



언제 어디 놓아도 화려한 오방 색감으로 공간을 멋지게 만들어준다. 배색된 바람개비 쿠션은 강금성 작가 작품으로 빈컬렉션.



실을 한 줄 한 줄 꼬아 만들었기에 만든 이의 정성이 더욱 애뜻하게 느껴지는 매듭 팔찌는 조은희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옛 여인의 소품에서 우아함이 흘러넘친다. 장신구가 달린 삼색 노리개는 무형문화재 옥색(장신구)장 경기 제18호 벽봉 김영희 선생 작품으로 예지방.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복과 함께 편지나 얇은 선물을 전달할 때 사용. 컬러가 배색된 빨간 돈 보자기는 이원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새해 선물로 적합.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모형의 오브제는 쿠션으로 사용 가능하다. 모노컬렉션.



장식처럼 벽에 걸어두어도 웬만한 그림 액자 부럽지 않다. 조각보는 천연 염색된 것이며 한정혜 작가 작품으로 니들스튜디오.



2016년 새해의 모든 복을 담아 선물하면 좋을 아이템이다. 오방색으로 만들어진 복주머니는 이원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심각형 모양의 그린 색상 보자기 주머니는 선물 포장이나 물건을 아여쁘게 보관하고 싶을 때 더욱 실용적이다. 이창숙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 행복으로 가득한 포근함을 감싸다

소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 니트를 입었을 때 느껴지는 웬지 모를 정감은 겨울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정감이 느껴지는 니트 위에 작은 나뭇잎과 나비 모양 장식을 달아 제작된 브로치로 스웨터에 잘 어울린다. 단주(Danju.co.kr).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니트 덧신으로 컬러가 점점 번지는 듯한 그레데이션이 더욱 포근한 느껴진다. 아기 선물로 제격. 단주(Danju.co.kr).



손끝에 부드러운 촉감이 먼저 와 닿는다. 배넛저고리를 연상시키는 조끼는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색감으로 센스를 더했다. 조영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겨울 옷장을 열어보면 다채로운 컬러와 다양한 소재의 옷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처럼 추위가 맹위를 떨칠 때면 자연스레 손이 가는 옷이 있죠. 바로 니트 소재 옷들입니다. 만졌을 때 가슬가슬, 보들보들한 니트만큼 겨울에 잘 어울리는 소재가 있을까요? 뜨개, 패치워크, 손으로 엮은 듯한 짜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니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클래식한 니트 스웨터에서부터 굵은 두께가 매력적인 캐주얼한 클러치 백, 작가의 숨씨로 더욱 유니크한 브로치 등 아이템 역시 다양각색입니다. 동양과 서양 모두 오래전부터 니팅을 사랑했는데, 니팅 디테일이 현대 기술과 만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칠수록 부드러운 청키 니트, 짜임을 형상화한 페이크 니트, 자유로운 감성의 니트 패치워크 오브제까지. 더욱 다양해진 니트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겨울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S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니트가 주는 탄력적인 형태감이 돋보인다. 울 소재의 네이비와 머스터드 컬러가 배색된 구조적인 머플러 겸 모자는 신예선 작가 작품.



루스한 핏을 가진 니트 한 벌만 있어도 추운 겨울이 두렵지 않을 터 컬러 배색된 브이넥 니트는 김미수 작가 작품으로 미수아바하브.



체형에 따라 소재가 늘어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입을 수 있어 더욱 좋다. 브라운 니트 팬츠는 김미수 작가 작품으로 미수아바하브.



세련된 보랏빛 컬러로 로프를 이용하여 짠 것이 특색 있다. 루스한 코트 위에 딱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이며 핑크 숄 가방은 엄윤나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하얀 눈이 내리는 날, 가장 세련된 맛을 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레이와 버건디 컬러가 배색된 빙거지 형태의 모자는 신예선 작가 작품.



밝은 컬러 색감을 장착한 코트 등의 아우터 위에서 더욱 싱그럽게 느껴진다. 장미꽃 모형의 니트 브로치는 단주(Danju.co.kr).



끼고 있으면 니트가 주는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따뜻한 그레이 톤 니트 빙어리장갑은 김미수 작가 작품으로 미수아바하브.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물론 목 위로 일곱 색깔 무지개가 활짝 피어났다. 꽃 모양 코바늘뜨기로 만들어진 머플러는 단주(Danju.co.kr).



머리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에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진보라 색상의 머리 모양 니트 모자는 Another hair project 엄윤나 작가 작품.



##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설화수 50년 Celebrating Sulwhasoo's 50th Anniversary

2016년 설화수가 브랜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최초의 한방 화장품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브랜드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까지, 설화수가 걸어온 50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에디터 윤연숙



1966년, 세계 최초로 인삼을 원료로 한 화장품 'ABC 인삼크림'을 선보이면서 설화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인삼에 대한 열정은 한방에 대한 연구로 진화하였고, 1997년 마침내 전통 처방과 현대 피부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세계 최초의 한방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가 탄생한 것이다. 인삼은 예로부터 다양한 효능을 지녀 아시아의 가장 귀한 약용식물로 여겨졌다. 설화수는 이러한 인삼을 뿌리부터 열매까지 면밀히 연구한 진세노믹스™를 통해, 인삼을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원료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컨버전 기술로 완성한 자음생크림은 'ABC 인삼크림'의 오마주이자 설화수 인삼 과학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제품이다. 인삼뿐 아니라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원료에 대한 끊임없는 집념과 연구는 이상적인 피부 균형을 찾아주는 설화수만의 고유 원료인 자음단™을 완성했다. 자음단™을 원료로 만들어진 윤조에센스는 최초의 한방 부스팅 세럼으로 획기적인 성공을 거뒀으며, 설화수를 대표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제품이 되었다. 설화수는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이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베스트셀러 브랜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설화수의 행보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설화수는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모두가 열망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S

The history of Sulwhasoo began in 1966 with the release of ABC Ginseng Cream, the first cosmetic product in the world formulated with ginseng. The passion for ginseng at the time evolved into a Korean medical study and finally led to the birth in 1997 of Sulwhasoo, the very first Korean herbal medicinal cosmetic brand. Sulwhasoo has made it possible to recreate ginseng as a special ingredient that brings vitality to the skin through Ginsenomics™, a comprehensive study of ginseng from its roots to its berries. It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powered by its bioconversion technology, pays homage to ABC Ginseng Cream and combines with it the essence of Sulwhasoo's ginseng science. With Sulwhasoo's boundless tenacity in the study of ginseng and other ingredients that convey Asian wisdom, it has perfected JAUM Balancing Complex™, which has its original formula for achieving the ideal skin balanc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the very first Korean herbal medicinal boosting serum formulated with JAUM Balancing Complex™. Sulwhasoo has unmatched brand power in Korea's beauty brand market, and is continuously evolving into a best-selling brand beyond Asia to the rest of the world. Its journey has been possible due to the trust and devotion of its customers. It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grow into a global beauty brand that pays back its customers' love with quality and that earns everyone's enthusiasm.





독자 이벤트 <르크루제와 설화수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프랑스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르크루제와 설화수가 함께 특별한 쿠킹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르크루제는 'From the Kitchen to the Table'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조리 후 테이블에 바로 놓아도 손색없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독보적인 제품력으로 국내외 요리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 쿠킹 클래스는 르크루제 청담 부티크 쿠킹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르크루제 전속 쿠킹 컨설턴트 김진희 셰프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르크루제 제품을 활용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르크루제의 무쇠 주물 냄비는 열을 잘 흡수하고 전도하는 기능이 뛰어나 영양소의 파괴를 줄이고, 맛과 향을 살리는 저수분 요리가 가능해 더욱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저수분 요리는 식품 자체에 함유된 수분만으로, 또는 최소한의 수분을 첨가해 조리하는 것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요리입니다. 똑같은 요리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풍미와 감동이 달라집니다. 건강과 감동을 전할 요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ulwhasoo> 독자 이벤트

일시 2016년 2월 26일(금) 11시~12시 30분 장소 르크루제 청담 부티크(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7 양스동빌딩 1층/ 02-3444-4841) **쿠킹클래스(시연)** 르크루제 제품을 활용한 저수분 웰빙 요리 **기타** 르크루제에서 소정의 기념품 제공/ 발레 파킹 무료 혜택/ 당일 제품 구매 시 30% 할인 혜택 **참여방법**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한 분 가운데 3명(동반 1인 초대 가능)을 추첨하여 개별 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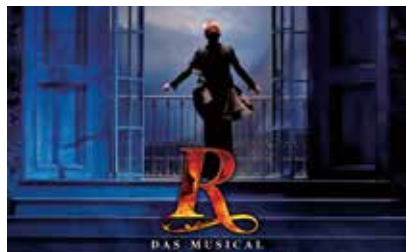
새해의 가장 순수한 음악,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년 합창단이자, 위대한 음악가들의 산실이 되어준 빈 소년 합창단이 2016년에도 신년 음악회로 새해의 문을 활짝 연다. 아시아 국가 중 오직 한국에서만 열리는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에서 천사들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1498년 조직되어 52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 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잇고 있는 전통이 깊은 합창단이다. 2016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경쾌하고 신나는 새해맞이 음악들, 빈 소년 합창단의 고유 레퍼토리인 종교음악, 각 나라의 민요들과 더불어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노래들을 선사한다. 특히 'Bella Italia(아름다운 이탈리아)'란 타이틀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와 익살스럽고 유쾌한 음악을 선사했던 로시니를 비롯하여 이 시대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그리고 대표 칸초네 <오 솔레 미오(O Sole Mio)> 와 <볼라레(Volare)>까지 한국인이 즐겨 듣는 아름다운 곡들이 빈 소년 합창단의 순수한 목소리로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빈 소년 합창단에는 최초의 한국인이자 여성 지휘자인 김보미 지휘자를 비롯하여 세 명의 한국인 단원이 활동 중이다.

일시 1월 24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1577-5266

뮤지컬 <레베카>



사교로 죽은 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막심과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댄버스 부인과 맞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시** ~3월 6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1577-6478

뮤지컬 <드라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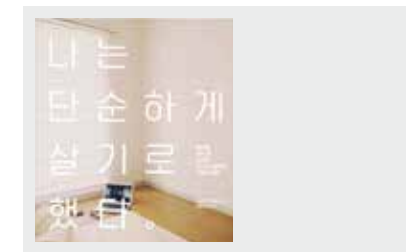
<드라큘라>는 동명 소설을 천재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과 함께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아온 명작으로 웅장한 시몬드와 죽음을 초월한 애절한 러브 스토리가 어우러진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1월 23일~2월 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1588-5212

콘서트 <SOUL 4 REAL>



10주년 콘서트 이후 휴식을 가졌던 브라운아이즈소울이 새 앨범 발매와 함께 2년 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 <SOUL 4 REAL>로 찾아온다. 네 남자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화음과 감미로운 목소리, 화려한 가창력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일시** 2월 13~14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문의 02-3446-3225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물건에 집착하던 한 출판 편집자가 미니멀리스트가 되면서 얻게 된 변화를 기록한 책이다. 책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와 저자 자신이 물건을 줄인 후 달라진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은이** 사사키 후미오 **옮긴이** 김윤경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전시 <대영박물관-영원한 인간>



런던을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온 수천 년 전 인류의 문화유산이 서울에 도착했다. 인류 역사상 영원 불멸의 주제인 '인간의 얼굴'을 주제로 대영박물관의 방대한 소장품 중 최고 작품 176점을 엄선한 전시다. **일시** ~3월 20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문의 02-522-3342

전시 <모네-빛을 그리다>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모네를 비롯해 고흐, 세잔,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작가의 명화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로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캔버스에만 그려져 있던 그림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캔버스아트' 방식을 도입했다. **일시** ~2월 28일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문의 02-540-0329

#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알맞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알맞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피부를 견고하게 하여 타고난 듯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울리고 피부를 갹사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S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명의본초옴플**  
명의진\*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축 옴플  
7ml×5 | 200,000원대

##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노폐물을 말끔히 견어내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마백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백삼젤**  
저자극 백삼 파우더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보들보들한 피부를 선사 하는 데일리 워시 옴플  
80ml | 55,000원대

**자정수**  
각질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수분을 공급하여 마백 바탕을 촉촉하게 다져주는 젤 타입 마백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마백에센스**  
피부에 쌓여가는 착착함을 견어내고 자정삼백단\*이 투명한 빛을 선사하는 마백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마백스팟**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소 부위 집중 개선 스팟  
35ml | 170,000원대

**자정수액**  
가볍게 펴지고 촉촉하게 스며들어 맑고 깨끗한 인색을 선사해주는 마백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마백크림**  
촉촉한 보습력이 피부를 갹사 수분력을 높여주고 마백 효과를 활성화해주는 마백 크림  
50ml | 135,000원대

**산백크림**  
(SPF 47 / PA+++)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맑고 환한 인색을 가꾸어주는 마백 스킨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 라인**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절하게 가꾸어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필리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음생/자여진 라인**

**자여진에센스**  
깊어지는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자음생진본유**  
인삼 종자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종자유 성분이 토렴하고 함양되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노화의 징후를 다스리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30,000원대

**수율 라인**

**수율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율스킨크림**  
(SPF 50+ / PA+++)  
비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수분 스킨크림  
50ml | 55,000원대

**수율미스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층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층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피부 방어력을 높이고 생기를 일깨우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다함설 라인**

**진설아이크림**  
적층의 생명력으로 눈가 피부를 탄력있게 다스리는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고 한결 깊은 젊음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갹사 리처치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흡선 라인**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옥운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마디 & 헤어**

**에올마사지크림**  
지친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동백운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00ml | 35,000원대

**연설마사지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있게 가꾸어주는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MEN**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전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본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정양스킨크림**  
(SPF 50+ / PA+++)  
자외선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남성 피부를 보호하는 스킨크림  
50ml | 40,000원대

**본운 2중**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로션  
본운에센스 100ml + 본운유액 90ml + 본운에센스 5ml + 본운유액 5ml | 125,000원대

**쿠션**

- 13호 라이트 핑크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5호 딥 베이지

**퍼펙팅쿠션**  
(SPF 50+ / PA+++)  
립탈한 개략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피부를 맑게 정화시켜 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CC**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 3호 살구 베이지

**채담 스무딩베이스**  
(SPF 25 / PA++)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로 준비시켜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감싸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 1호 화사한 색
- 2호 자연스러운 색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마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촉촉한 피부로 커버해 주는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  
30ml | 53,000원대

**에서 스킨케어**  
(SPF 26 / PA++)  
촉촉한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25 / PA++)  
매끄러운 한방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촉촉하게 피부 수분을 채워주는 파우더  
30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유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색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팩트**  
영운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SPF 35 / PA++)  
스킨케어부터 바른 듯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하는 크림 파운데이션  
30g | 80,000원대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설화수 진설아이크림(3명)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아이크림인 진설아이크림은 적송의 생명력으로 눈가 피부를 탄력 있게 다스려 젊은 눈가 피부를 선사합니다.



### 르르루제 쿠킹 클래스(3명)

프랑스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르르루제와 설화수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에 독자 3명(각 1인 동반 총 6명)을 초대합니다. (클래스 안내는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6년 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르르루제 쿠킹 클래스
- 당첨자 발표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 2015년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                       |                                |
|-----------------------|--------------------------------|
| <b>설화수 자여진에센스(5명)</b> | <b>뮤지컬 &lt;시카고&gt; 관람권(4명)</b> |
| <b>권수경</b> 대전 유성구 노은동 | <b>강여진</b> 서울 구로구 도림로          |
| <b>박진영</b> 전북 전주시 덕진구 | <b>박주연</b> 서울 양천구 신정로          |
| <b>이민경</b> 인천 남구 소성로  | <b>윤정수</b>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
| <b>조윤희</b> 대전 중구 서문로  | <b>이강호</b> 충남 홍성군 통북면          |
| <b>천일선</b> 부산 해운대구 좌동 |                                |

2015년 11/12월호 당첨자 선물은 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雪花秀

# Sulwhasoo



## 천 년 동안 쌓인 적송의 기운으로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눈가에 품다

###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척박한 땅에서도 천 년 동안 생명을 이어가고 세월의 흐름에도 한결같이 젊음을 지키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적송. 설화수는 적송의 진귀한 기운을 담아 진설아이크림을 탄생시켰습니다. 주름은 물론 칙칙함까지 개선하고, 피부생명강화 안티에이징 성분 DAA가 눈가의 힘을 키워 결코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설화수 전국 매장>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 백화점**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고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9-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몰렛 순천점 061-720-5151

-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디큐브백화점 거제점 055-680-014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1. 펼치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품격 있는 삶(8p)							
피부 섬기기(12p)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新 공간을 보다(22p)							
건너다(28p)							

## 2. 누리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설화인(36p)							
어우러지다(44p)							
설화풍경(50p)							
설화보감(54p)							
아름다운 기행(60p)							
설화수를 말하다(66p)							

## 3. 익히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배움의 기쁨(76p)							
한국의 멋(80p)							
설화에장(82p)							
읽다(84p)							
집 안 단장(88p)							
몸 단장(90p)							
설화 히스토리(92p)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르크루제 쿠킹 클래스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